


리아호나

성찬식 모임에서
휴대 기기를
사용해도 될까? 26쪽

다음으로 받아야 할
의식, 18쪽

“하나님의 ...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34쪽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청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와
루스 엘 렌런드 자매

“아름다운 선물, 성찬”에서, 18쪽.



18

특집 기사

10 교회 재정 자립의 영적 기초
제럴드 코세 감독
교회는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원리를
재정 및 투자 정책에 적용한다.



표지
사진: 레슬리 님슨

18 아름다운 선물, 성찬
데일 지 렌런드 장로와
루스 엘 렌런드 자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침례의 축복을 새롭게 할
수 있다.

26 디지털 시대의 예배
애덤 시 올슨
전자 기기는 안식일 모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상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다.

30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가르침: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함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청소년들이 공과반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대신,
선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34 성도들: 교회 이야기—제6장: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조셉은 다시 번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교회 본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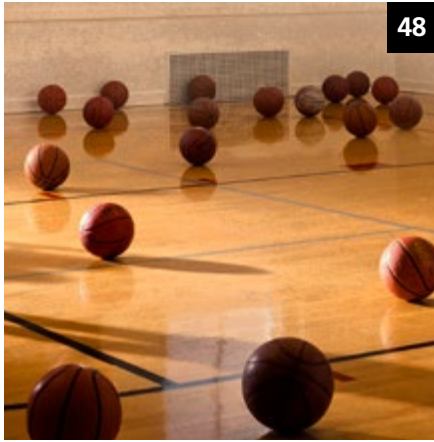
4 신앙의 초상:
대런 레이와 스테이시 레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6 성역의 원리: 의미 있는 관계 맺기

16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지성적이며
고귀한 어머니가 되고자 노력함
릴리안 파가두안-비야모르

40 후기 성도의 소리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노력하십시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48

44 에릭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리처드 엠 롬니
이 가나의 청년 성인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았고, 이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다.

48 그런데 안 들어가면 어쩌죠?
세라 키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물문경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는가?



50

50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라이언 카
자신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한 경험을 나누고, 청소년들에게 준비 방법을 제안하는 전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56 선교사가 되는 것에 관해 교리와 성약에서 배우는 5가지
살렛 라카발
이 성구들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선교 사업의 원리를 설명한다.

58 교회가 정말 필요한 6가지 이유!
에릭 비 머독 및 조슈아 제이 퍼키
다음은 교회 조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필수적인 몇 가지 이유이다.

62 질의응답: “여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64 포스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65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구주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
게릿 더블유 공 장로



70

66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 관한 다음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겠는가?

68 빛을 비추라: 빛나는 간증
나는 떨렸지만,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나누었다.

70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
머나 엠 호이트
티미는 물문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기억했고, 자신과 사촌이 다시는 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72 신앙, 소망, 그리고 은혜—1부:
평화의 목소리
메건 암네히트
그레이스는 전쟁 동안 네덜란드에 사는 것이 두려웠지만, 자신의 가족이 괜찮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74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75 축구와 일요일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
나는 축구를 정말 좋아했지만, 교회를 찾은 후로는 하나님을 축구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76 경전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김 웹 리드

79 색칠하기: 나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헬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게리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브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애드워드 듀브, 쉘런 윙버그,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더글러스 디 홀츠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프란시스코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아 드니스,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애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켈슨,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나, 민디 셸루, 차를 워들레이, 머리아 컷슨

편집 인턴: 리아 바턴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대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널 앤드류, 페이 피 앤드리스, 맨디 밴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디자인 인턴: 시오네 이누키하야마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글렌 어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데렉 리차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드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버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29호, 제55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운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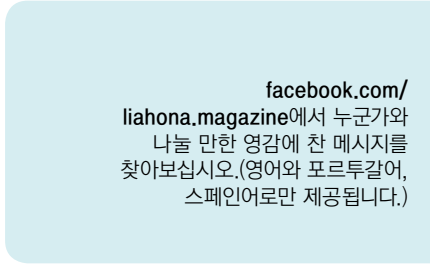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ugust 2018 Vol. 42 No. 8.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인터넷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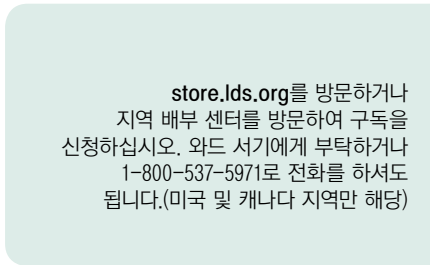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아이콘: GETTY IMAGES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4, 16, 40, 72, 79, 80

두려움, 48, 65, 72, 76

안식일, 18, 75

간증, 6, 34, 68

디지털 기기, 26, 30

역경, 10, 41, 44, 80

개인의 가치, 62

모성, 16

연차 대회, 12

개종, 44

몰몬경, 18, 34, 42, 70

예수 그리스도, 18, 65, 74

경전, 6

봉사, 6, 40

인내, 80

계시, 34, 56, 58, 64

선교 사업, 42, 50, 56

장애, 44

교육, 16

선교사 준비, 50, 56, 75

조셉 스미스, 34

교회 모임, 26, 30, 58

성신, 18, 30, 34, 43, 50, 56

친절, 70

교회 지도자, 14, 43

성약, 18, 58

평화, 72

교회사, 34, 58

성찬, 18, 65

하나님 아버지, 18, 41, 44, 58

기도, 41, 43, 44, 66, 72

신앙, 4, 10, 44, 55, 65, 72, 76

회개, 34, 43

대런은 런던에 있는 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을 위해 대런과 스테이시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영국으로 왔다. 그러나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대런의 수입만으로는 그곳에서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대런 레이와 스테이시 레이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스테이시: 우리는 호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브리즈번에는 영화사가 없었거든요. 대런은 어쩔 수 없이 경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대런: 나라의 끝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전 일자리도 없었고 우리끼리 살 집을 마련할 형편도 안 되었어요.

스테이시: 한번은 부모님 댁 세탁실에서 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대런: 그리고 나서 브리즈번에 영화사가 새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계약직을 얻게 되었고요.

스테이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성역의 원리

의미 있는 관계 맺기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은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커진다.

다 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라는 권유는 그들과 보살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이다. 즉, 마음 편하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쉐런 유뱅크 자매는 “저는 의미 있는 관계 없이는 의미 있는 변화도 없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봉사가 타인의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그 봉사 행위는 “치유하고, 경청하며, 협력하고, 존중하려는 진실한 소망에서 비롯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¹

의미 있는 관계란 목적을 위해 마련된 방책이 아니다. 그것은 연민과 진심 어린 노력, “거짓 없는 사랑”에(교리와 성약 121:41) 기반을 둔다.²

관계를 맺고 강화하는 방법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과 관계를 ... [맺]습니다.”라고 말했다.³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노력할 때,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제시한 방법에 기초한 다음 제언을 살펴보자.⁴



함께 시간을 보낸다.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과 계속 연락할 기회를 찾는다.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한다.⁶ 봉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을 자주 방문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카이프, 전화, 카드 보내기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는 단순하면서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힘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경전을 펼치다 보면 아내가 책갈피에 꽃아 놓은 애정이 넘치면서도 힘을 주는 쪽지가 자주 보였습니다. … 그 소중한 쪽지[는 여전히 저에게] 위안과 영감의 원천이 되는 한량 없는 보물[입니다].”⁷

또한 관계를

맺는 데는 당사자 양쪽이 모두 필요함을 기억한다. 여러분이 사랑과 우정을 베풀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일 때라도, 그 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필요하다면, 둘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가능할지에 대해 지도자와 상의한다.

그들에 대해 알아본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훌륭하게 봉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는 또한 가족의 이름을 일일이 알아 두고, 그들의 생일, 축복, 침례, 결혼 등의 중요한 행사를 알아 두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특별히 성취한 일이 있을 때 쪽지나 전화로 축하해 줄 수 있다.⁵

성역의 원리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메시지로 나눌 내용은 아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알게 될 때, 성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의 관심과 동정심에 더하여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피상적인 대화는 일정이나 날씨나 다른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가벼운 대화로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주제, 즉, 느낌, 믿음, 목표, 고민 등을 화제로 삼지는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당신의 아들에게 알리심으로써(요한복음 5:20 참조),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심으로써(아모스 3:7 참조) 더욱 의미 있는 대화의 본보기를 보이셨다. 영이 인도에 따라 일상적인 일들과

삶의 역경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가 비슷한 관심사와 경험을 가졌음을 알게 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경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이 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⁸ 주의 깊게 경청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상대방도 자신이 사랑과 이해를 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기회가 많아진다.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인정한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모든 회원이 똑같아지도록, 즉 모든 회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상충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서로 다르게 …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이런 다양성의 이점을 취할 때, 그리고 주변의 동료 제자들을 강화하고 북돋아 주기 위해 각자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고 사용하도록 서로 격려할 때, 교회는 번창합니다.”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대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 될 수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¹⁰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들이 성장할 잠재력에 기초하여 그들을 대할 때, 그들도 그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¹¹

그들에게 봉사한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저 보살핌을 주고 싶을 때이든 간에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바친다. 여러분은 비상시나, 아프다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달려가 위로와 지지와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행하도록 선택의지를 주셨다.(니파이후서 2:14 참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요한1서 4:19 참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리의 봉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 그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과 신뢰를 키우게 된다.¹² 이것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친절한 행동의 상승곡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주

1. Sharon Eubank, in "Humanitarian Acts Must Be Rooted in Relationship, Sharon Eubank Says," mormonnewsroom.org.
2. "성역의 원리: 동정의 손길을 내밀라", *리아호나*, 2018년 7월호, 6~9쪽 참조.
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2쪽.
4.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가장 중요한 것들", 22쪽 참조.
5. 에즈라 테프트 벤슨, "가정 복음 교사에게",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51쪽 참조, 번역 수정.
6. See Charles A. Wilkinson and Lauren H. Grill, "Expressing Affection: A Vocabulary of Loving Messages," in *Making Connections: Readings in Relational Communication*, ed. Kathleen M. Galvin, 5th ed. (2011), 164-73.
7. 리차드 지 스퀴트, "결혼에서 얻는 영원한 축복",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6쪽.
8. "성역의 원리: 훌륭한 경청자가 하는 다섯 가지", *리아호나*, 2018년 6월호, 6~9쪽 참조.
9.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네 가지 명칭",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9쪽.
10. 토마스 에스 몬슨,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9쪽.
11. See Terence R. Mitchell and Denise Daniels, "Motivation," in *Handbook of Psychology*, vol. 12, ed. Walter C. Borman and others (2003), 229.
12. See Edward J. Lawler, Rebecca Ford, and Michael D. Large, "Unilateral Initiatives as a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2, no. 3 (Sept. 1999), 240-56.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베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셨다. (요한복음 11:5 참조) 그리스도는 그들을 아셨다.(요한복음 1:47~48 참조) 또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누가복음 24:13~31 참조) 그분이 그들과 나눈 대화는 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는 것이었다.(요한복음 15:15 참조) 그분은 그들의 차이점을 인정하셨고(마태복음 9:10 참조), 그들의 잠재력을 보셨다.(요한복음 17:23 참조) 그분은 만인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이들을 섬기셨다.(마가복음 10:42~45 참조)

여러분은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교회 재정 자립의 영적 기초

저는 최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이 유서 깊은 장소에서 방문객들은 용감하게 이 위대한 후기 사업의 기초를 놓은 이들의 신앙과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커틀랜드 시대는 전례 없는 성장과 영적 부흥의 시기였지만, 초기 성도들 대부분은 극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번창하는 농장과 안정된 직업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성스러운 땅을 걸으면서, 과거 커틀랜드에서 경험했던 빈곤과 현재 교회와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회원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 번영 사이에 존재하는 극적인 대조에 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후기 성도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현세적 축복은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약속, 곧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에 기초합니다.¹

바로 이 약속이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약속은 몰몬경의 열다섯 책 중 일곱 책에 있는 18개의 구절에 등장합니다. 이 성구들에 언급된 번영의 축복은 주로 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 성장을 누리고 현세적으로 자립하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특히 현세적 번영은 몇 가지 지침이 되는 원리를 충실히 준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신 그

우리는 교회 지도자로서 성스러운
십일조와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리들은 이제 후기 성도의 일상생활과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는 십일조의 법, 금식의 법, 교육, 고용 및 자립의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또한 자신의 수입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불필요한 빚을 피하며, 식품과 재정 자산을 비축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회원들이 이러한 현세적인 원리를 배우는 동안, 교회 지도자들 역시 이 원리들을 교회 전체에 걸쳐 더 큰 규모로 시행해 왔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교리와 지침을 재정 및 투자 정책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제 이 원리 중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리: 십일조의 법

1838년 7월 8일,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서 주님은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이 특별한 가르침은 모든 성도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²

그날 회원들은 십일조의 법을 주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신성한 율법의 회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성약, 곧 그들이 십일조의 법에 충실한다면,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리라는 성약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일조의 법은 살고 있는 장소, 사회적 지위, 또는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후기 성도들이 지키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감리 감독단에 부름을 받은 이후로, 저는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충실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십일조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한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십일조의 법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거름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의 신앙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십일조의 법은 주님의 왕국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입니다.”³

십일조에 관한 계시를 받았던 1838년 그날, 조셉은



교회 소유의 농장 근처에 살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과일과 채소를 따는 봉사를 할 기회가 있다. 교회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통조림 공장과 감독의 창고에 공급되어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돕는다.

주님께서 십일조의 사용을 어떻게 승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히신 또 다른 계시를 받았습시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회와 나의 고등평의회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하여 또 그들에게 주는 나 자신의 음성에 의하여 그것이 처리되어야 할 때가 이제 이르렀느니라.”⁴ 이 계시에서 언급된 “감독과 그의 평의회” 및 “나의 고등평의회”는 각각 오늘날의 감리 감독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리와 성약 120편에 담겨 있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세세하게 적용됩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은 매년 12월 첫째 금요일에 모여, 십일조와 현금 추정치를 토대로 다음해에 사용할 교회의 성스러운 기금의 배분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그러한 평의회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협의하고, 계시를 구하며, 만장일치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로서 성스러운 십일조와 현금을 적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그에 관해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부가 낸 헌금의 성스러운 특성을 잘 압니다.”⁵ 헝클리 회장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교회가 충실한 회원들에게서 받은 헌금은 헌납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금고에 들인 것입니다. … 우리가 관장하는 기금은 회원들이 헌납한 헌금으로서 절대적인 정직성과 고결함은 물론 고도의 신중함을 기해 관리될 것이라는 성스러운 신뢰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헌납을 하신 여러분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기금의 주인이신 주님께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⁶

우리는 금융기관이나 영리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⁷ 권유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의 구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⁸ 말입니다.

성스러운 십일조 기금은 정책에 의해 교회의 영적 및 종교적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승인되고 책정됩니다. 십일조

2016년 7월, 후기 성도 자선회는 인도의 카림나가르에 280대의 휠체어와 핸드사이클을 기증했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133개국에 50만 대가 넘는 휠체어를 제공했다.



기금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전 세계 30,000개 이상의 단위 조직에 예배 장소 제공 및 관리, (2) 2017년 2,700여 건의 프로젝트를 비롯한 교회의 복지 및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회 학교, 대학,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420개 선교부와 70,000여 명의 선교사에게 필요한 자원 및 전 세계 선교 사업 지원, (5) 전 세계 약 160개 성전과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건축과 운영, 광범위한 가족 역사 및 기록 보존 프로그램 관리, (6) 교회의 총괄적인 관리 지원.

저는 십일조의 법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회 회원 개개인을 위한 영적이고도 현세적인 축복의 원천입니다.

둘째 원리: 자립과 독립

개인의 선택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진보와 영원한 구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립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끊임없이 권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은 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가능한 한 빛은 피하시고, 빛이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갚아서 빛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세와 관련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빛을 모두 갚았다면, 비록 적은 액수라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모진 풍파가 몰아닥쳐도 여러분은 [가족을] 지켜 줄 보호막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⁹

러셀 엠 벨슨 회장님도 다음과 같이 자립의 축복을 강조하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됩니다. 의로움과 독립심, 검약, 근면, 그리고 자립정신이 개인의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삶을 변화시킵니다.”¹⁰

가정에서 현명하게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개인 회원 및 가족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신중한 재정 관리는 교회가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신성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가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게 하려 함이요.”¹¹

이 섭리는 특히 우리 시대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교회가 완전한 재정적 독립을 달성했으며 어떤 형태의 빛도 없이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핑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줄이[더라도] ... 우리는 돈을 벌리지 않을 것입니다.”¹²

재정 관리 정책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연례 예산안을 작성하고 지출을 할당할 때 이 정책이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다음 두 가지의 간단하고 명확한 원칙을 따릅니다.

- 첫째, 총 지출은 예상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다.
- 둘째, 운영비 예산은 십일조 기부금의 예상 성장치보다 매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

셋째 원리: 앞날을 대비하여 생활함

교회 회원들은 인간의 행동과 자연의 맹위로 야기된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은 분명하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기근, 재해, 불황이든, 또는 기타 뜻밖의 역경이든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여분의 물, 기본 식품, 의약품, 의복 및 유사시에 필요한 기타 물품 등을 가정에 비축함으로써 앞날을 대비하는 생활을 실천하도록 자주 권고해 왔습니다. 회원들은 또한 “수입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저축하여 재정 예비금을 서서히 늘려야 한다.”라는 권고도 받았습니¹³

교회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현세적인 준비의 원리가



회원들이 지역 가족 역사 센터에서 가족 사진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받고 있다. 십일조 기부금은 교회의 전 세계적인 가족 역사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적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 전역에는 유사시에 사용할 생필품으로 채워진 곡물 저장고와 창고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또한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자원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는 관행을 체계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 둔 돈은 교회의 투자 준비금에 추가되며 투자 준비금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데, 그중 대부분은 과세 사업(일부는 그 역사가 교회의 유타 초창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감), 상업용, 산업용, 주거용 부동산 및 농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투자 준비금은 내부 전문가 집단과 외부 고문이 관리합니다. 또한 현명하고 신중한 청지기 직분과 현대의 투자 관리 원리에 따라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의 종들에게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물어본 주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돈을 투자하지 않고 대신 땅에 감추어 둔 종을 꾸짖었습니다. 주인은 그 돈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전혀 투자하지 않은 종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¹⁴ 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영적 원리에 부합하여, 우리는 교회의 재정 준비금을 비생산적인 은행 계좌에 유휴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맡깁니다.

이 투자 기금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그 사명과 프로그램과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응급 재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기금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지상의 모든 나라에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이 개발 도상국과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리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집회소, 더 많은 성전, 그리고 회원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들의 삶을 축복할 기타 필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적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이 모든 기금은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넷째 원리: 주님의 방법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¹⁵ 저는 교회의 감리 감독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이 원리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독단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배경, 경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함께 협의하며 현안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관한 계시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립니다. 거시 경제 지표와 재무 분석 같은 것을 고려하긴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계획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교회의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오직 영감과 주님의 신권 권능을 통해서만 성취되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라는 지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부름을 통해 매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영향력 있고 부유한 단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교회의 힘을 단순히 그 건물의 수나 아름다움, 또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교회의 진정한 부는 그 백성들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¹⁶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것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서로와 이웃을 돌보는 수백만의 충실한 회원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¹⁷

달리 말하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공통된 신앙과 성약으로 결속된 회원 개개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교회의 힘이며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교회가 회복되던 초기에 주님께서 십일조의 법, 자립과 독립, 앞날을 대비하여 생활하는 것, 주님의 방식으로 성도를 부양함에 관해 계시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들이 교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교회 전체에 있어 위대한 영적, 현세적 축복의 원천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원리들은 구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교회의 사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

주

1. 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1:20 참조, 54쪽.
2. 교리와 성약 119:4.
3. 고든 비 힝클리,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7쪽, 번역 수정.
4. 교리와 성약 120:1.
5.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하늘 문”,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0쪽.
6. 고든 비 힝클리, “몸소 실천하는 후기 성도”,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85쪽, 번역 수정.
7. 모로나이서 10:32.
8.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2.
9. 고든 비 힝클리,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4쪽.
10. 러셀 엠 넬슨, “주님의 방법으로”,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29쪽, 번역 수정.
11. 교리와 성약 78:14.
12. 고든 비 힝클리,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54쪽.
13. *지침서 제2권*, 6.1.1.
14. 마태복음 25:14-30 참조.
15. 고린도전서 2:5.
16. 고든 비 힝클리, “교회의 형편”,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55쪽.
17. “The Church and Its Financial Independence,” July 12, 2012, mormonnewsroom.org.

지성적이며 고귀한 어머니가 되고자 노력함

릴리안 파가두안-비아모르

*나는 어머니의 역할에서 목적의식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 오래전에 일지에 써 놓은 글을 보고 관점이 바뀌었다.*



나는 늘 과학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고 싶었다.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 학부 시절, 나는 더글라스 오버 교수님의 지지 덕분에 분자 생물학과 생명공학의 세계를 접하고 그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또한 여름 인턴십 과정으로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있는 분자 실험실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다.

공부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와서는 필리핀 대학교 DNA 분석 실험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내 경력의 정점은 여러 지역 사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학회에 참석하며, 내 과학 논문이 국내외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였다. 대학원 과정도 시작한 나는 경력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

2년 동안 직장에 다닌 후, 나는 소꿉 친구와 성전에서 결혼했다. 얼마 후, 첫 아이가 태어났고 나는 처음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아기를 돌보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대학원 수업을 쫓아가고,

회사에서 프로젝트와 논문을 처리하고, 교회 부름을 수행하는 수많은 일 속에서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안배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남편과 이러한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일을 잠시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나는 아직 직장을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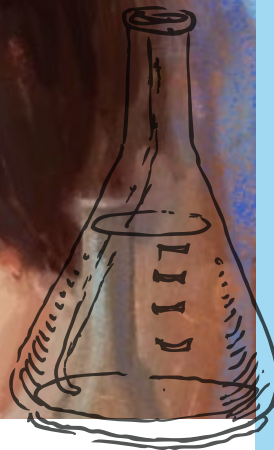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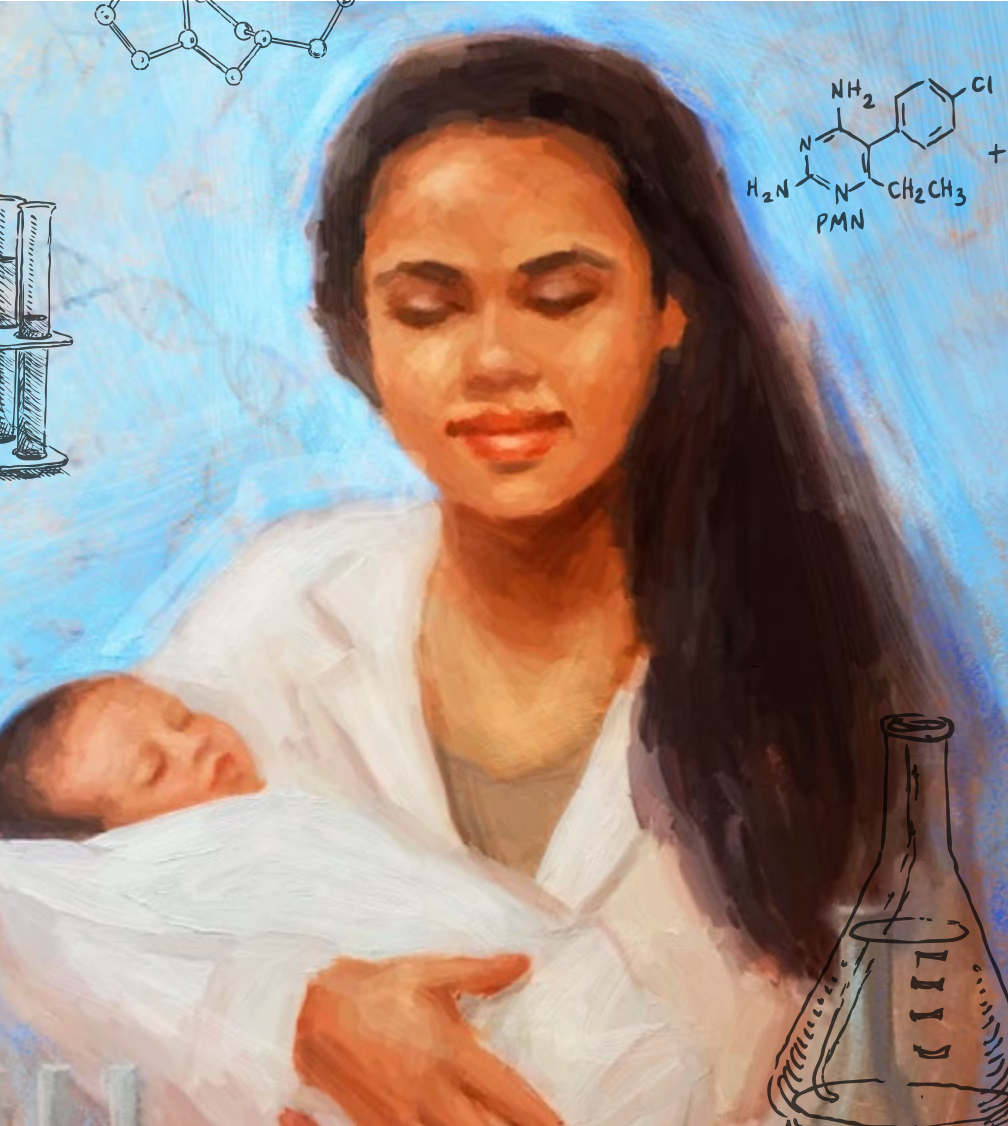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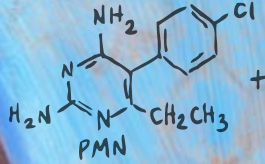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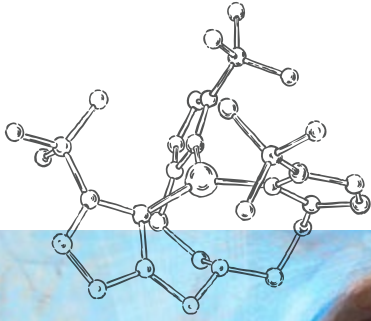
그러다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조기 산통이 와서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그제서야 나는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했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나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전념하기로 했다.

나는 평생 어머니가 되는 것을 꿈꾸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 줄은 미처 몰랐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경력 단절과 대학원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사실에 자주 속이 상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머니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남편은 끈기 있게 내 고민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일지에 써 보도록 권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일지도 쓰지 못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잠든 시간을 틈타 나는 오래된 일지들을 읽어 보기로 했다. 나는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청년과 독신 시절에 어머니가 되고 싶은 나의 열망이 얼마나 한결같았는지를 보고 놀랐다. 그중 한 글귀가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학업에서나 영적인 배움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성적이며 고귀한 어머니가 되겠다.”

나에게 꼭 필요한 깨우침이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영이 증거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받은 교육과 쌓아온 직장 경력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영감 어린 선택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의대에 진학하여 환자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미치고 의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명문 대학 장학금을 포기하고 이 세대의 추세보다 훨씬 일찍 가정을 꾸려서, 자녀에게 훌륭하고도 영원한 영향을 미치도록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충실한 이 두 여성이 동일한 질문에 이처럼 다른 응답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한 여성에게 옳은 일이 다른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선택이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영감에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President M. Russell Ballard, Acting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Women of Dedication, Faith, Determination, and Ac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address, May 1, 2015), 4, womensconference.by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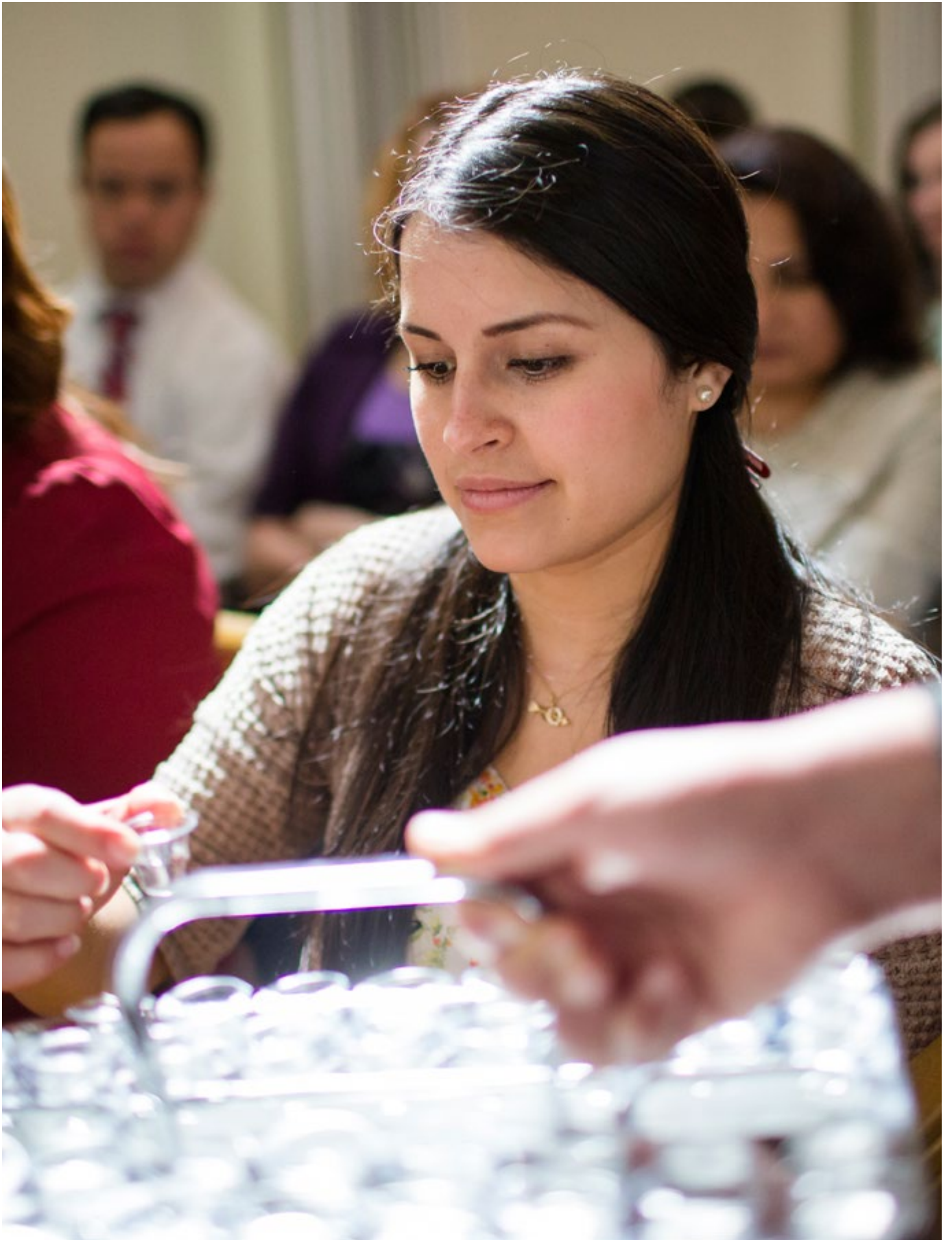
깨달았다. 나의 간증이 다시 깨어나고 모성에 대한 영원한 관점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나는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자란 후에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다. 나는 아직도 회사와 가정과 교회 일 사이에서

제한된 시간을 안배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지만, 주님의 도움이 함께한다면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인생의 실험실”에서 귀중한 경험을 하며 어머니가 되는 기쁨과 목적을 계속 알아 가고 있다. ■

글쓴이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산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와
루스 엘 렌런드 자매
렌런드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다.

아름다운 선물, 성찬

성찬을 취하고 구주를 기억하는 동안 여러분이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0 17년 5월 21일에 프랑스 파리 성전이 헌납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저희는 성전 일반 공개를 도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 경내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덴마크 조각가 베르텔 토르발센의 1838년 원작을 복제한 것입니다. 이 조각상은 성전 뜰의 중심이 되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 장엄함과 규모와 배경은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묘사한 이 작품에 매료된 방문객은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이 조각상은 라틴어로 *Christus Consolator*로 불리는데, *Consolator*란 위안을 주는 자를 말합니다.¹ 위안이란 슬픔 또는 낙담의 시기에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고, 위로하며, 공감하고, 애도를 표하거나 동정심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² 그리스도 조각상은 구주께서 지니신 그런 거룩한 성품을 표현해 줍니다.

Christus Consolator 원작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성모 마리아 교회인 *Vor Frue Kirke* 안에 있습니다. 두 기둥 사이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 조각상은 열두 사도의 조각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위쪽과 아래쪽에는 잘 알려진 성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기둥의 위쪽에는 덴마크어로 다음 말씀이 새겨 있습니다. “DENNE ER MIN SØN DEN ELSKELIGE HØRER HAM.”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 있는 Christus Consolator

성구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체 성구는 이렇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마가복음 9:7)

Christus Consolator가 서 있는 받침대 앞면에는 덴마크어로 다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KOMMER TIL MIG.” “내게로 오라”라는 성구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중,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보다 더 애절하고도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전체 성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이 조각상 원작을 통해, 우리는 독생자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유와 내게로 오라는 아들의 권유를 함께 받습니다. 두 분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구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오라고 만인에게 권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각 사람은 오직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³

그리스도의 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메시지에서 그분들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다음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니파이후서 31장; 제3니파이 9장;

	니 파 이 후 서 31 장	제 3 니 파 이 9 장	제 3 니 파 이 11 장	제 3 니 파 이 27 장	총 계
신앙	1	2	4	1	8
회개	5	4	4	3	16
침례	10	0	13	3	26
성신	8	2	6	1	17
견딤	3	0	0	3	6
아버지	14	5	20	25	64

제3니파이 11장; 제3니파이 27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장에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 끝까지 견딤이 곳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도표를 보면 각각의 항목이 몇 차례나 언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앙이 8차례, 회개가 16차례, 침례가 26차례, 성신이 17차례, 끝까지 견딤이 6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에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는 64차례나 언급되었는데, 이는 침례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⁴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교리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한 참조 성구 두 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더라.

그리고 또한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 그에게는 내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신을 주시리라. 그런즉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

또 [나 니파이]가 아버지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하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파이후서 31:11~12, 15)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되풀이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의 명을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 슬픔, 중독, 질병, 죄책감 또는 수치심이라는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유와 희망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곧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는 단 한 차례만 경험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교리와 공덕에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니파이후서 31:19)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나오는 단계를 평생 되풀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단계는 바로 앞 단계에 바탕을 두며, 우리는 이 순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신앙은 행사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발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신을 이따금 경험하는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배우고 그런 자질을 계발할 수 있습니다.⁵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처럼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며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31:2~21; 제3니파이 11:23~31; 27:13~21; 모로나이서 4:3; 5:2; 6:6; 교리와 성약 20:77, 79; 59:8~9 참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있는 모든 단계가 어떻게 평생 되풀이되고 확립될 수 있는지를 알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을 위한 침례를 단 한 번만 받습니다.



주님의 만찬인 성찬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님이 쓰신 신앙개조라는 신학적 걸작을 숙고해야 합니다. 이 책은 1899년에 처음 출간되었으며, 이 책을 읽고 연구하는 후대들에게 그들이 교회와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관해 갖는 질문에 답해 줍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소개 부분을 제외한 각 장이 13개의 신앙개조 중 하나의 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⁶ 몇몇 신앙개조는 하나 이상의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각 장은 신앙개조 중 하나의 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님의 만찬-성찬”이라는 제목의 제9장은 성신에 관한 장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⁷ 탈매지 장로는 이를 신앙개조 제4조와 연관 짓습니다.

제9장 서두에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개조 제4조에 명시된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우리는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성신의 은사 등 복음의 원리에 따름으로써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한 모든 회원이 지켜야 할 의식인 주님의 만찬 곧 성찬 의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⁸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탈매지 장로가 왜 성찬을 신앙개조

제4조와 연관 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확인 의식을 받고 교회 회원이 된 사람 모두가 그다음으로 참여해야 할 의식입니다.

성찬은 벨기세텍 신권을 받은 남성이 그다음으로 참여해야 할 의식입니다.

성찬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개인이 그다음으로 참여해야 할 의식입니다.

성찬은 인봉된 부부가 그다음으로 참여해야 할 의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다음으로 참여해야 할 의식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죄를 회개하며, 삶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는 열쇠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성약과 침례의 축복을 새롭게 하는 절차입니다.

지침서 제2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회원들은 성찬을 취함으로써 구주를 항상 기억하고 침례 성약과 축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자주 함께 모이라는 명을 받는다.”⁹ 여러분은 “무슨 축복이요?”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하는 것은 분명 침례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침례에 따르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 하나인 청결해지는 효력 또한 새롭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이 하신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와 성찬을 취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청결하게 하는 침례의 효력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청결하게 되며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할 수 있습니다.”¹⁰

그렇더라도, “성찬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합니다.¹¹ 달리 말하자면, 토요일 밤에 고의로 죄를 지은 후, 일요일에 빵 한 조각을 먹고 물을 조금 마심으로써 기적적으로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깊이 후회하고 죄를 버리는 더 큰 노력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구주께 가증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청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¹² 이것이 바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입니다.(교리와 성약 59:9) 후기 성도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자신의 삶에 거듭 적용하여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마땅히 침례에 이어 주님의 만찬인 성찬이 따릅니다.

우리는 침례와 성신을 받고, 이어지는 의식으로 성찬을 취함으로써 이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숙고와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서두르거나, 휴대 전화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찬식이 영적 경험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교회에 오십시오. 성찬 찬송이 시작되면, 구주와 그분의 속죄와 사랑과 연민에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성찬을 취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동안 여러분이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르완다에서의 교훈

1994년에 르완다에서 끔찍한 대량 학살이 발생하여, 약 60일에서 90일 사이에 60만에서 9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수도 키갈리에 지부를 개설했습니다. 그 지부는 전임 선교사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 저희가 아프리카 남동 지역에서 봉사할 때, 애석하게도 르완다에서 우리 교회의 등록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층집을 개조한 집회소의 자리가 교회 모임을 하도록 허가된 구역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회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과 상의하여, 그 지부를 폐쇄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키갈리와 솔트레이크시티 및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변호사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도들은 언제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지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해결책도 진척도 없이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약 10개월 후, 저희는 그 성도들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키갈리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기에 앞서, 저희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요청하여 그분들이 하는 주례 모임의 성전 기도 명부에 이 문제를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키갈리로 떠날 일정을 앞둔 화요일, 놀랍게도 저희는 르완다 정부가 키갈리에 교회의 임시 등록을 허가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 구역 설정 위원회는 용도지역 조례에서 예외를 승인했습니다. 키갈리 성도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 건물에서 다시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지부에서 일요일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도착하여 회원들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그야말로 모든 회원과 그들의 수많은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한다는 마음에 들떠서 모임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성찬이 축복되고 전달될 때, 저희는 모두 새롭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영을 느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희는 예전에는 왜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런

영을 느끼지 못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성도들을 둘러보면서 저희는 그들이 성찬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과 인내심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키갈리 성도들과 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성찬을 취하는 축복을 갈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주께서 니파이인들 사이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뒤, 성찬이 그들을 당신의 반석 위에 세우는 열쇠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성찬을 취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지어졌음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칠 때에, 그들이 넘어질 것이요”(제3니파이 18:12~13)

성찬은 우리가 일요일마다 받는 아름다운 선물이며, 우리가 지상에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중 중요한 요소를 경험하며,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삶에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이러한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구주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

남아프리카에 있는 제 친구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이앤은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한 지부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다이앤은 회중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당의 구조 탓에 성찬을 전달하던 집사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이앤은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앤이 성찬을 취하지 못한 것을 본 다른 회원 한 명이 모임 후에 지부 회장에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일학교가 시작되자 다이앤은 빈 교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신권 소유자 한 명이 들어와 무릎을 꿇더니 빵을 축복한 뒤 다이앤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물을 축복한 다음 성찬 컵을 건넸고, 그녀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두 가지 생각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아! 이 형제님이 나만을 위해 이 일을 하셨구나.’ ‘아! 구주께서 나만을 위해 이 일을 하셨구나.’ 다이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구주의 희생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다이앤은 그분을 더 가깝게 느꼈고, 그 느낌을 일요일뿐 아니라 매일 간직하고 싶다는 열망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녀는 성찬을 취하기 위해 회중과 함께 앉지만, 매주 일요일에 새롭게 하는 성약은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이앤은 그 성찬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느끼고, 삶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깨달으며,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¹³

저희는 모로나이가 했던 다음 권고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다.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그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리심은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거룩하며 흠 없게 되게 하는 것이니라.”(모로나이사서 10:32~33)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성찬을 침례와 성신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받는 의식으로 여길 때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니파이후서 31:19)



성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배우고 상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속죄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무척 감사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니파이인에게 말씀하실 때, 비와 바람과 홍수가 닥칠 때라고 하셨지,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비와 바람과 홍수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이 성찬을 취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5:9; 18:1 참조)

살다 보면 교회에 가서 성찬을 취하기를 망설이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인도를 따르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취한다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쏟아질 것이며 그리하여 여러분은 굳건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의 영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

2017년 9월 26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Come unto Christ[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에서 발췌함. 말씀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See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consolator."
2. See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console."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년), 1쪽.
4. 하나님/그/그의 등의 모호하지 않은 호칭을 포함하여.
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6장, 115~126쪽 참조.
6. 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개조, 제12판. (1924), 목차 참조.
7. 탈매지, 신앙개조, 목차 참조.
8. 탈매지, 신앙개조, 157쪽.
9.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1.2.
10. 맬린 에이치 옥스,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야호나, 2001년 4월호, 14쪽, 번역 수정.
11. 탈매지, 신앙개조, 160쪽.
12. 맬린 에이치 옥스, "성찬식과 성찬", 리야호나, 2008년 11월호, 17~20쪽 참조.
13. 데일 지 렌던트,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리야호나, 2016년 5월호, 41쪽 참조.

디지털 시대의 예배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내가 아는 어느 상호부조회 회장은 언젠가 성찬이 전달되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꺼내어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다. 구주에 관한 사도들의 간증에 감화된 그녀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결심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고무적인 느낌은 며칠 후 와드의 한 회원이 우편으로 보내온 익명의 편지로 산산이 깨져 버렸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녀가 성찬식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나쁜 본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휴대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뜻은 절단코 없었다. 예배실에서 휴대 기기를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만 가끔 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은 후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어려움

어느 세대든지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는 휴대 전화 보유자(54억 명)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35억 명)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¹ 거기에 태블릿이나 “패블릿”(폰과 태블릿의 합성어, 태블릿처럼 큰 휴대폰이라는 의미 - 옮김), 그 외 커넥티드 디바이스(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용 기기-옮김)]까지 더해지면서, 세상은 이런 질문으로 씨름을 하고 있다. 과연 적절한 “디지털 예절”은 무엇인가?

부모, 지도자, 교사들은 교회라는 환경에서 지켜야 할 적절한 디지털 예절이 무엇인지를 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서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두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축복과 위험성을 조언해 왔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하나 다 알려 주지는 않는다.(모사이야서 4:29~30 참조) 회원들은 스스로 문제를 연구해야 하며, 결정을 내릴 때 성신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종종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영감, 사탄의 악용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또 그분의 일을 진척하기 위해 과학 기술을 축복으로 주셨다.² 물론, 일부 회원들은 디지털 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기기들이 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³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예배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3가지 원리.

배워야 하며,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휴대 기기는 교회 회원들이 복음 공부,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할 때, 또 복음을 나누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2018년 1월에 복음 자료실 앱을 사용한 사람은 3백만 명 이상에 이른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공부한 시간을 모두 더하면 천 년 이상이 된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은 디지털 기기의 이러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간관계가 훼손되거나 죄에 빠지는 등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한다.⁴ 교회 안에서 디지털 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배와 복음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비단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은 디지털 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어떤 도구들은 미숙하거나 훈련받지 않은 손에 들린 여느 도구와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영화, 심지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새로운 발명의 좋은 영향력을 망쳐 놓고 떨어뜨리며 상쇄시키고자 재빨리 그것의

부정적인 면을 이용합니다.”⁵

성찬식 모임에서의 휴대 기기 사용

디지털 기기에는 잠재적인 축복뿐 아니라 방해 요소도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회원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조셉 스미스는 원리에 의거하여 문제에 접근할 때 얻게 되는 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⁶

이제, 성찬식에서 휴대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살펴보자. 공과반에서 디지털 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번 호 리아호나 30쪽에 나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가르침: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함” 기사를 참조한다. 이 기사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인 브라이언 케이 애쉬튼 형제님이 기고했다.

원리 1: 예배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한다.

성찬식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우리의] 헌신을 [바치는] 시간이다.(교리와 성약 59:10)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에서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⁷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 시간에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 **예배의 질을 향상한다.** 회원들은 성찬식 시간에 경전을 찾고, 찬송가를 부르고, 영적인 느낌을 적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회원들을 돕는다.** 감독이 새로운 사람이나 저활동 회원이 성찬식 시간에 예배당 뒤쪽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영의 인도를 받는 경우, 그는 워드 선교 책임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반겨 주고, 성찬식 모임 이후에 있을 복음 원리반에 초대하라고 할 수도 있다.
- **중요한 연락을 받는다.** 의사, 긴급 구조원 및 그 외 비상 대기 직종 종사자들이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할 경우 휴대 기기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구주께 집중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디지털 기기로 손쉽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기기가 우리의 배움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해 줄 수는 없다. 또한, 기기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알려 줄 수는 있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베드나 장로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제이지, 가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⁸ 이런 관계는 더블 클릭이나 다운로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⁹ 그래서 앞서 언급한 그 상호부조회 회장이 전화를 사용해 그리스도께 생각을 집중했을 때, 그녀는 전화기가 아니라 그분과의 성약을 새롭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그 여정은 그녀의 생각과 기도, 행동으로 마무리되어야만 했다.

원리 2: 방해 요소를 최소화한다.

우리는 더 집중해서 예배하고 배움을 얻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대화를 하거나 소란스러운 아이를 다루는 것에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해 고안된 기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게 되는 방식은 가지각색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성찬식 시간에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한다면, 성찬 의식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스포츠 경기 점수, 알람 벨소리나 진동, 숫자 배지 혹은 성찬식 모임과 관련 없는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일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많은 사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일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몇 줄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방해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디지털 기기를 아예 집에 두고 오거나 전원을 꺼 두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또한, 예배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싶다면, 기기를 무음으로 전환하거나 방해 금지 모드, 혹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¹⁰

원리 3: 자신의 예배에 집중한다.

언제나 이런저런 방해 요소는 있을 것이며, 그것들은 디지털 기기가 아닌 다른 요인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보채는 아기, 웅웅거리는 벌레, 혹은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누군가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해 두는 것을 잊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방해 요소 무시하기”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러셀 엠 벨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각 회원은

성찬식에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¹¹

주변의 누군가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어린이이거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어떤 용도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예배로 생각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다.

함께 배우기

옥스 회장님은 이러한 원리들을 다루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셨다. “성찬식 동안-특히 성찬이 축복되고 전달되는 동안-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행동, 특히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¹²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해 지침이 될 수 있는 원리는 이 외에도 많다. 디지털 기기가 점점 더 일반적인 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우리는 적절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심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처할 각 상황이 다르고,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혹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함께 배워 나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려 해야 한다. ■

주

1. See “10th Annual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VNI) Mobile Forecast Projects 70 Percent of Global Population Will Be Mobile Users,” Feb. 3, 2016, newsroom.cisco.com.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소셜 미디어에 관한 사도의 권고”, *리아호나*, 2015년 1월호, 17쪽 참조;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18-19.
3. ISarah Jane Weaver, “Elder Bednar Tells 2016 Mission Presidents Not to Fear Technology,” July 6, 2016, news.lds.org.
4. See “Elder Bednar Tells 2016 Mission Presidents.”
5. 엠 러셀 벨라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8년 6월호, 교회 소식 1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84쪽.
7. 앨런 에이치 옥스, “성찬식과 성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7~20쪽 참조.
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리아호나*, 2010년 6월호, 22~31쪽 참조.
9. See Scott D. Whiting, “Digital Detachment and Personal Revelation,” *Ensign*, Mar. 2010, 16-21.
10. See M. Russell Ballar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Church Educational System devotional, May 4, 2014), lds.org/broadcasts.
11. 러셀 엠 벨슨,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4쪽.
12. 앨런 에이치 옥스, “성찬식과 성찬”, 18쪽.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가르침: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함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기가 우리가 가르치는 공과반에서
방해 요소가 아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교회 각지의 와드와 스테이크를 방문할 때면 청소년 담당 교사와 지도자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공과반에서 디지털 기기의 방해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많은 훌륭한 청소년 교사들이 “휴대 전화를 꺼내서 ... 을 찾아봅시다”와 같은 말로 공과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공과 시간에 청소년이 디지털 기기를 의롭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에 관해 제가 배운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술에 관한 예언

선지자와 사도들은 기술이 주는 축복에 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업이 더 빠르게 진척되도록 현대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862년,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류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과학과 기술에서의 모든 발견은 ...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탄의 힘으로부터 지구를 구속하고, 진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준비할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위대한 발견을 ... 활용해야 하며, 우리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서 유용한

지식의 혜택을 누리게 하여 그들이 나아가 위대한 대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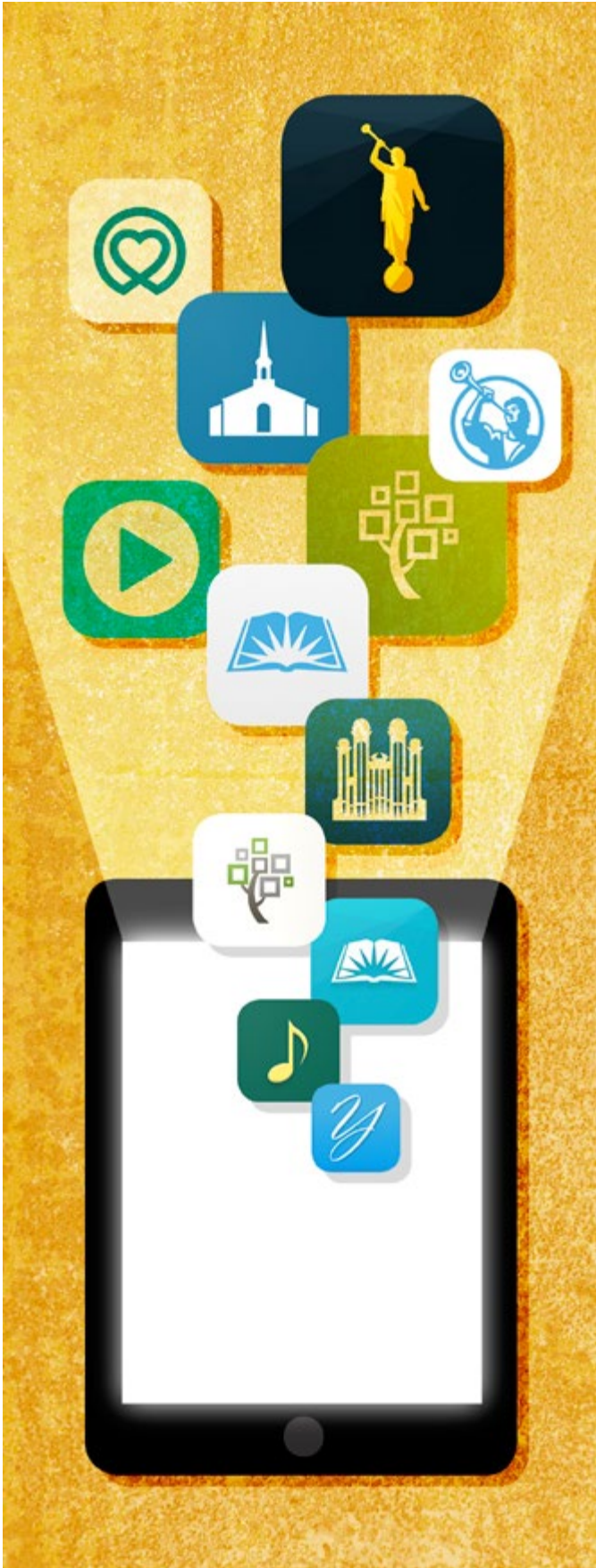
의로운 일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함

저는 개인적으로 경전과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복음 공부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전임 선교사로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복음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훌륭하고 유용한 모든 발명품을 악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므로, 부모와 지도자, 교사로서 우리는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의롭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는 부모는 이 기사의 뒷부분에 짝막하게 실려 있는 교회 자료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과 시간은 또한 청소년이 의로운 일과 성신을 느끼는 일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다음은 교사와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원리에 의거한 기대치를 설정함

공과반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원리에 의거한 기대치를 설정하십시오. 다음은 주요 원리의 한 예시입니다. “공과반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성신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그러한 결과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리는 “공과 중에는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지 않는다”와 같은 규칙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규칙은 소셜 미디어가 나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에, 위의 원리는 공과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보고 싶으니 다음 주에는 꼭 오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적절한 방법으로 교실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잘못이 아닌 행동이 잘못이라는 듯 암시하는 규칙은 우리의 청소년에게 해가 됩니다. 그런 것은 다른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혼란을 일으키고, 또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공과반 청소년들의 도움을 받아 설정하는 기대치는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걸맞아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배움

여러분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두려움이 있거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이 디지털 기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와드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복음을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 교사들에게 교육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교사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점점 능숙해지자, 이를 활용하여 복음을 공부하는 것에 더욱 신바람이 났으며, 또한 공과반에서 디지털 기기가 주의를 방해하는 문제도 대폭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형 공과를 진행함

저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의롭게 사용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형 공과를 진행하고, 공과 계획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영감 어린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공과에 참여하는 가운데 교사가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느끼며, 성신이 임재하는 공과반에서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런 공과반에서는 흔히 교사가 영감 어린 질문을 한 다음, 청소년들을 종종 소그룹으로 나누어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면서 공과를 시작합니다. 교사는 공과 내내 반원들에게 경전을 찾아보게 하고, 연차 대화 말씀을 공부하게 하며, 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상을 시청하게 하고, 배우는 내용을 토론하게 합니다. 청소년이 학습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디지털 기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균형을 이룸

디지털 기기를 공과에 도입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가 공과의 초점이 되거나 성신을 느끼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반에서 디지털 기기로 할 수 있는 활동은 경전 인쇄본이나 교회 잡지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디지털 기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이나 교사가 간증을 전할 때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휴대 전화를 집어넣고 영이 가르치는 것을 느끼도록 다정하게 권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내를 보임

끝으로, 일부 청소년은 반에서 디지털 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교사는 어떤 공과반에서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보입니다.

기술: 위험이 아닌 축매제

청소년이 적절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도록 도우면, 그들은 평생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과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제대로 이해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기술은 위험이 되기보다는 영적인 대화의

축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²

우리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은 교사들이 공과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적극 도입하고 청소년들이 의로운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

주

1.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18-19.
2.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쪽.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함

브 라이언 케이 애쉬턴 형제는 디지털 기기를 의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이라고 말한다. 다음 자료들은 개인, 부모 및 가족이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전자 기기 사용 안전 수칙.** 이 소책자에 나오는 지침은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지만,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책자는 복음 자료실 앱에서 28개 언어로 볼 수 있으며, 배부 센터 또는 온라인 상점에서 간행물로도 구입할 수 있다.
- 좋은 매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외설물을 피하는 것에 관한 가정의 밤 공과 목록은 overcomingpornography.org/resources(10개 언어로 이용 가능)에서 볼 수 있다.
- 소셜 미디어에 관한 가족 토론 지침은 lds.org/go/81833a(10개 언어로 이용 가능)에 나오는 “가족은 소셜 미디어를 의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또는 *리아호나* 2015년 8월호에 실린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기사 “소셜 미디어로 전 세계를 덮으십시오”에 강조되어 있다.



제 6 장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다음은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제6장이다. 이 책은 14개 언어로 출판될 예정이며, 복음 자료실 앱의 Church History[교회사]와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7월호에 게재된 제5장에서는 1828년에 몰몬경 원고의 첫 116페이지를 잃어버린 사건이 묘사되었다.

18 28년 여름, 조셉이 하모니로 돌아오자 모로나이는 다시 와서 판을 거두어 갔다. 모로나이는 “네가 충분히 겸손하고 인내한다면 구월 스물두째 날 다시 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다.¹

조셉은 참담했다.²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틴에게 원고를 맡긴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판과 해석기를 맡기실 만큼 조셉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하늘에서 어떤 벌을 주셔도 조셉은 할 말이 없을 것만 같았다.³

그는 무거운 죄책감과 회한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만일 주님께서 다시 번역을 맡기신다면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다.⁴

7월의 어느 날, 집 근처에서 길을 걷고 있던 조셉에게 모로나이가 다시 나타났다. 모로나이는 해석기를 건넸고, 해석기 안에서 신성한 전언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느니라.”⁵

조셉은 안도했다. 그러나 곧 그를 꾸짖는 말씀이 이어서 나타났다. “네게 주어진 명령이 얼마나 엄격하더냐. 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주님은

조셉에게 성스러운 것들을 더 신중히 다루라고 명하셨다. 금판의 기록은 마틴의 명성보다도,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조셉의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주님께서 금판을 마련하신 것은 고대에 주셨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함을 모든 이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조셉에게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라는 권고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행한 바를 회개하라.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은 자로다.” 그분은 다시 한번 조셉을 당신의 선지자요 선견자로 부르시며,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셨다.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넘겨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 너는 은사를 소유하지 못하리라.”⁶

그해 가을, 조셉의 부모가 하모니를 찾았다. 조셉이 맨체스터에 있는 집을 떠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갔지만, 그들은 아들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조셉 일세와 루시는 지난여름의 비극으로 아들이 받았을 크나큰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셉은 겨우 몇 주 사이에 첫 아이를 잃었고, 아내도 잃을 뻔했으며, 원고마저 잃었다.

조셉의 부모는 아들과 며느리가 무사한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는 목적지를 2킬로미터 정도 앞두고서, 길에서 조셉과 마주쳤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그들은 더없이 기뻐했다. 조셉은 하나님의 신뢰를



있었던 일이며, 죄를 회개한 일, 그리고 계시를 받은 일 등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조셉은 고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계시를 기록해 두었다.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조셉은 모로나이가 그 뒤로 판과 해석기를 돌려주었다고 하며, 천사가 기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천사는 제가 충실하고 겸손해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조셉은 판을 여행 가방 속에 넣어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지금은 어머니가 번역을 받아적는 일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서기로 보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분명히 그렇게 되겠지요.”⁷

이듬해 봄, 마틴 해리스는 하모니로 와서 그다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했다. 마틴의 아내인 루시 해리스가 조셉이 금판을 번역하는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제 마틴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마틴이 조셉에게 속았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루시는 남편에게도 사기죄를 뒤집어씌울 참이었다.⁸

마틴은 조셉에게 판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더 달라고 매달렸다. 그는 법정에서 번역 일에 대해 낱알이 다 밝히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다. 루시는 판을 찾겠다고 조셉의 집을 뒤지기까지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마틴도 조셉의 서기로 일한 두 달 내내 직접 판을 본 적은 없었으니, 자신이 판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도 없었다.⁹

조셉은 이 일을 주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마틴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할 말을 알려 주지도, 다른 증거를 더 주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설혹 내가 네게 맡긴 것을 그들에게 모두 보여 주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 나의 종 조셉을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마틴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난여름 조셉이 했듯이 마틴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배워야만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세 명의 충실한 증인이 판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면 마틴도 그중 한 사람이 되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다.¹⁰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밝히셨다. “만일 이 세대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¹¹

마틴이 이 계시를 옮겨 적는 동안 조셉은 이 계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마틴은 자신이 정확하게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셉과 에머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다시 읽어 주었다. 그때 에머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고, 그도 계시를 읽는 마틴의 말소리를 함께 들었다. 마틴이 계시를 다 읽자, 아이잭은 그 말을 누가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셉과 에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아이잭이 말했다. “망상에 빠졌군. 그만들 두게.”¹²

마틴은 아이잭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시를 적은 종이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역마차에 올랐다. 금판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으러 하모니에 왔던 마틴은 그렇게 금판의 존재를 증언하는 계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법정에서 이 계시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팔마이리로 돌아가는 마틴의 가슴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는 지식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마틴은 후에 판사 앞에 서서 간결하지만 힘 있게 증언했다. 그는 한 손을 높이 들고 금판의 진실을 증언했으며, 자신은 조셉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오십 달러를 주었다고 말했다. 루시가 제기한 혐의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은 기각되었다.¹³

조셉은 주님께서 빨리 다른 서기를 보내 주시기를 기도하며 계속해서 판을 번역해 나갔다.¹⁴

맨체스터에서는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젊은이가 조셉의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조셉보다 한 살 어린 올리버는 1828년 가을부터 스미스 가족의 농장에서 남쪽으로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학교에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대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집에서 하숙을 했지만, 조셉과 금판에 대한 소문을 접한 올리버는 스미스 가족에게 그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처음에 가족들은 올리버 앞에서 말을 아꼈다. 그들은 원고가 사라지고 마을에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면서 경계심이 높아져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닫고 지냈다.¹⁵

그러나 올리버는 1828년과 1829년까지 이어진 겨울 동안 스미스 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 가족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 무렵에 조셉 일세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는 계시를 듣고서 하모니에서 맨체스터로 돌아와 있었다.¹⁶ 올리버가 진지하게 탐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선 조셉의 부모는 그에게 아들의 신성한 부름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다.¹⁷

올리버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번역 일을 돕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올리버 역시 조셉처럼 현대의 교회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또한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신다고 믿었다.¹⁸ 그러나 조셉과 금판은 먼 곳에 있었다. 맨체스터에 머무는 한 그는 조셉의 일을 도울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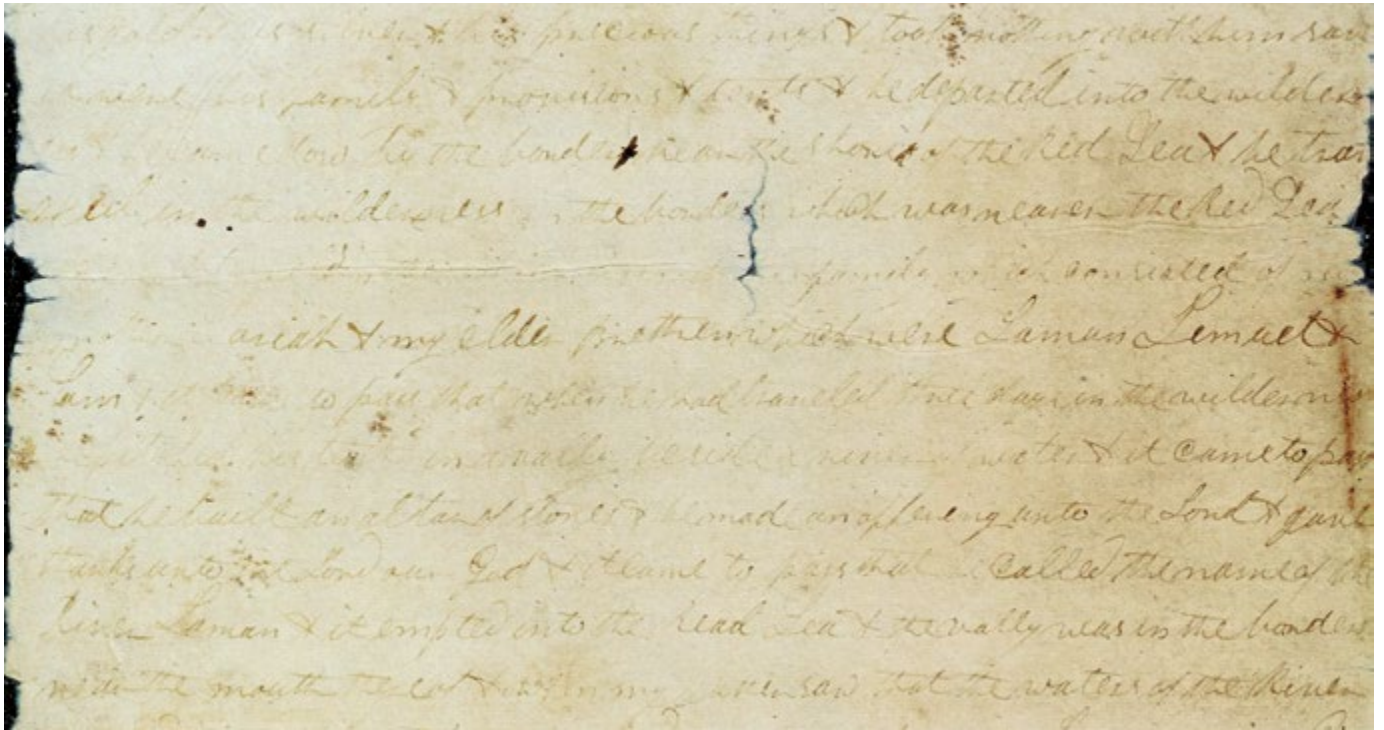
지붕 위로 굽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어느 봄날, 올리버는 학기가 끝나는 대로 하모니로 가서 조셉을 돕고 싶다는 뜻을 스미스 가족에게 전했다. 루시와 조셉 일세는 올리버에게 그 소망이 옳은지에 대해 주님께 여쭙보라고 권했다.¹⁹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올리버는 자신이 금판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진실인지 알아보고자 은밀히 기도했다. 주님께서는 금판과 더불어 조셉이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현으로 보여 주셨다. 올리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서기로서 조셉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⁰



판의 기록은 설 새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었다. 또한 올리버는 선지자들이 고대에 교회를 이끌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배워 나갔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물론경에 나오는 이 페이지의 번역을 기록한 서기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기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올리버는 학기가 끝나자마자 조셉의 동생인 새뮤얼을 동행하여 하모니로 향했다. 그들은 장장 160킬로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갔다. 길은 봄비에 젖어 축고 질척였다. 마침내 올리버가 새뮤얼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가락은 동상으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어서 조셉 부부를 만나 주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²¹

하모니에 도착했을 때, 올리버는 마치 그곳이 항상 지내던 곳인 양 편안함을 느꼈다. 조셉은 밤늦도록 올리버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올리버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었고, 조셉은 서기로 일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올리버가 온 뒤 조셉이 맨 처음 한 일은 작업할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조셉은 올리버에게 장인 앞으로 보낼 계약서의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계약서는 당시 에머와 함께 살던 작은 집과 헛간, 농지, 근처의 우물에 대해 조셉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²² 에머의 부모는 딸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계약 조건에 동의했고, 조셉이 예상못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웃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²³

그러는 사이,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몇 주에 걸쳐 만족스럽게 작업을 이어 갔다. 에머도 자주 그 방에서 자기 일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²⁴ 조셉은 판에 새겨진 문자에 해석기를 대고 들여다보면서 영어로 읽어 나가는 식으로 번역을 했다.

때로는 선견자의 돌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했다. 조셉은 선견자의 돌을 모자에 넣은 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모자에 얼굴을 집어넣고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선견자의 돌이 빛을 발하며 글을 보여 주었고, 조셉이 그 내용을 읽으면 올리버가 빠르게 종이에 받아적었다.²⁵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조셉은 잃어버린 원고의 기록을 다시 번역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올리버와 함께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번역해 나갔다. 주님은 원고를 가져다가 내용을 조작해 번역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사탄이 사악한 자들을 사주했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조셉에게 당신이 고대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금판에 들어갈 또 다른 판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판에는 잃어버린 부분의 내용을 채워 줄 기사가 담겨 있다고 확인해 주셨다.²⁶

주님은 조셉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말을 바꾸어 놓은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리니,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계보다 큼을 내가 그들에게 보일 것이니라.”²⁷

조셉의 서기로 일하면서 올리버는 전율을 느꼈다. 조셉은

매일같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으로 불리던 두 큰 민족의 복잡한 역사를 구술했고, 올리버는 그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의로운 왕과 사악한 왕, 속박당한 백성과 속박에서 벗어난 백성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의 뼈로 뒤덮인 벌판에서 기록을 발견하여 선견자의 돌로 번역했던 고대 선지자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 고대 선지자는 조셉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지닌 계시자이자 선지자였다.²⁸

판의 기록은 설 새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었다. 또한 올리버는 선지자들이 고대에 교회를 이끌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배워 나갔다.

그러나 올리버에게는 아직도 주님의 사업에 관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다. 그는 간절히 그 답을 찾고 싶어 했다. 조셉은 우림과 둠뎀을 통해서 올리버를 위한 계시를 구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다. “만일 네가 나에게 물으면, 받게 되리라. 만일 네가 탐구하면, 크고 기이한 여러 비밀을 알게 되리라.”

또한, 주님은 올리버에게 하모니로 오기 전에 받았던 증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도 올리버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주님은 올리버에게 물으셨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만일 내가 다른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말해 준다면 네가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²⁹

올리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은밀히 기도하여 성스러운 증거를 얻었던 일을 조셉에게 곧바로 이야기했다.

올리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알 수 없으며, 이제 자신은 이 일이 참됨을 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시 작업을 이어 나갔다. 한편, 올리버는 자신도 번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³⁰ 그는 하나님께서 선견자의 돌 같은 도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도 종종 수맥이나 광물을 찾기 위해 막대기를 써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막대기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계시가 오는 과정은 올리버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³¹

조셉은 다시 올리버를 대신해 주님께 여쭙보았고, 주님은 올리버도 신앙으로 질문한다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알려 주셨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올리버의 막대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확인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올리버에게 계시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올리버가 신앙에 의지한다면 조셉처럼 기록을 번역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신앙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³²

올리버는 계시를 받은 후 들뜬 마음으로 번역을 시도했다. 그런데 조셉이 하던 대로 해 보아도 글을 읽어 내기가 쉽지 않자, 그는 좌절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했다.

조셉은 올리버가 힘겨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서야 할 수 있었던 일을 올리버는 한순간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그것을 연마하고 발전시켜야만 했다.

올리버는 금세 번역을 단념했고,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이유를 조셉에게 물었다.

조셉은 그 질문을 주님께 여쭙었다. 그리고 응답이 왔다.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느니라.”

주님은 올리버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네가 번역함은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부름을 받아 해야 할 일은 내 종 조셉을 위하여 필기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올리버에게 나중에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올리버는 서기였고, 조셉이 선견자였다.³³ ■

인용된 문헌은 모두 saints.lds.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온라인 saints.lds.org/kor에서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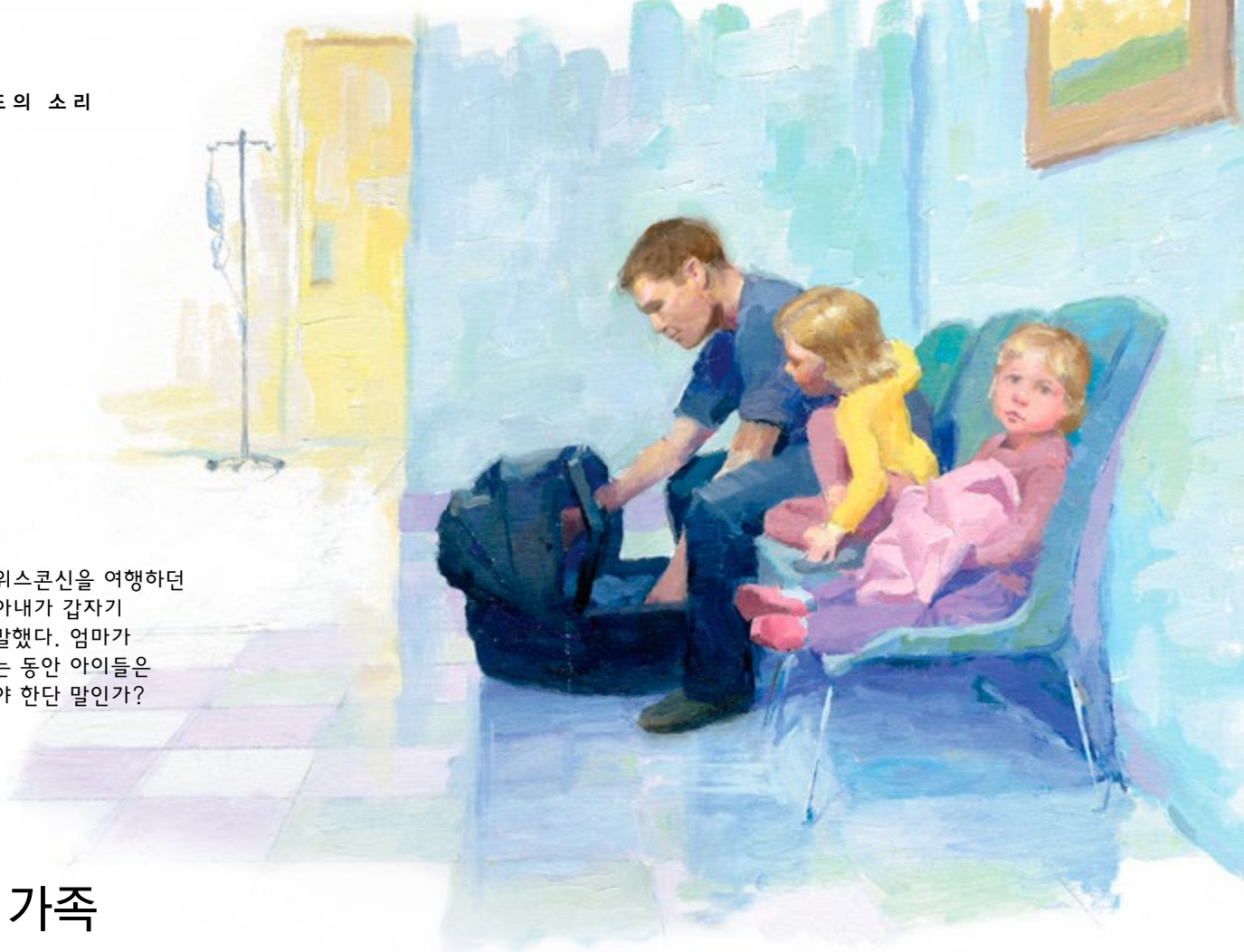
주

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9].
2. 교리와 성약 10:2(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5]- [7] 참조.
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8]-9].
5. 교리와 성약 3:1(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8]-9]; Joseph Smith History, 1838-6, volume A-1, 10, in *JSP*, H1:246 (draft 2).



6. 교리와 성약 3편(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I: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8]-9].
7.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3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8]-11].
8. Preface to Book of Mormon, circa Aug. 1829, in *JSP*, DI:92-4; "Testamoney of Martin Harris," Sept. 4, 1870, [4], Edward Stevenson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8, [5];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Mar. 1829 [DC 5], in *JSP*, DI:14-6, 17
9. "Testamoney of Martin Harris," Sept. 4, 1870, [4], Edward Stevenson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6, [9]; book 8, [5].
10. 교리와 성약 5편(Revelation, Ma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11. Revelation, Mar. 1829 [DC 5], in *JSP*, DI:17.
12.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considered" in original changed to "consider."
1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8, [6]-7].
1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11].
15.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12]; "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Morris, "Conversion of Oliver Cowdery," 5-8.
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12]; Knight, *Reminiscences*, 5; 교리와 성약 4편(Revelation, Feb.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Darowski, "Joseph Smith's Support at Home," 10-14 참조.
17.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12].
18.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19. 교리와 성약 6편(Revelation, Ap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7, [12]; book 8, [1].
20. Joseph Smith History, 1838-6, volume A-1, 15, in *JSP*, HI:284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I: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8, [1]; 또한 교리와 성약 6:22-23(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2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8, [3]-4];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I:16.
2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8, [4]; Joseph Smith History, 1838-6, volume A-1, 13, in *JSP*, HI:276 (draft 2); Agreement with Isaac Hale, Apr. 6, 1829, in *JSP*, DI:28-4;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23. Joseph Smith History, 1838-6, volume A-1, 18, in *JSP*, HI:296 (draft 2).
24. Joseph Smith History, 1838-6, volume A-1, 15, in *JSP*, HI:284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8, [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주제:** Daily Life of First-Generation Latter-day Saints(후기 성도 1세대의 일상)
25. "물문경 번역," 복음 주제, topics.ld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6, volume A-1, 15, in *JSP*, HI:284 (draft 2);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Golden Bible," *Palmyra Freeman*, Aug. 11, 1829, [2]. **주제:** Book of Mormon Translation(물문경 번역)
26. 교리와 성약 10:45(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니파이전서 9:5; 물문의 말씀 1장: 교리와 성약 3편(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27. 교리와 성약 10:42-43(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Lost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분실된 물문경 원고)
28.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모사이야서 8:16-18; 또한 옴나이서 1:20; 모사이야서 8:8-13; 28:11-15, 20; 엘마서 37:21, 23; 이더서 3:24-28, 18
29. 교리와 성약 6:5, 11, 22-24(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30. 교리와 성약 6:10-13(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8:4-8(Revelation, Ap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pr. 1829-B [DC 8], in *JSP*, DI:44-45; Revelation Book 1, 13, in *JSP*, MRB:15.
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5, book 8, [1]; Paul and Parks, *History of Wells, Vermont*, 81;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1829-B [D&C 8], in *JSP*, DI:44-5; see also Baugh, *Days Never to Be Forgotten*; Bushman, *Rough Stone Rolling*, 73; and Morris, "Oliver Cowdery's Vermont Years and the Origins of Mormonism," 106-29. **주제:** Divining Rods(점치는 막대기)
32. 교리와 성약 6편(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8편(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6, volume A-1, 13-4, in *JSP*, HI:276-78 (draft 2); 또한 Book of Commandments 7:3; 교리와 성약 8:6-7 참조.
33. 교리와 성약 9편(Revelation, Apr. 1829-D, at josephsmithpapers.org);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아들은 위스콘신을 여행하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아팠다고 말했다. 엄마가 수술을 받는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낮선 가족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아들 가렛이 미국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서 전화를 했다. 아들은 며느리 셸리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군사 훈련을 받았던 앨라배마를 떠나 노스다코타주 미닛 공군 기지로 여행하던 중이었다. 아들의 설명으로는 위스콘신을 지나던 중에 셸리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찾아 갔는데, 당장 다음 날 아침 셸리가 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부리나케 비행기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다음 날 안에는 도착할 수가 없었다. 아들은 애들 엄마가 수술을 받는 동안 다섯 살, 한 살배기 아이들과 이제 태어난 지 3주 된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

태산이었다.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은 만난 적도 없는 미닛 지역 감독에게 전화를 해 보기로 했다. 미닛의 감독은 오클레어에 있는 감독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오클레어 지역의 감독이 상호부조회 회장과 함께 가렛을 만나러 그가 있는 호텔로 갔다. 그들은 셸리가 수술을 받는 동안 기꺼이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했다. 나중에 셸리는 생판 모르는 두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면서도 그들이 복음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내가 오클레어에 도착했을 때는 셸리도 수술에서 회복 중이었고 손주들도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는 절박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했다.

몇 주가 지나고 2016년 10월 연차 대회를 시청하는데,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서 가르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심하고 영감에 찬 조직을 갖춘 교회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91쪽)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클레어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우리가 교회 회원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서로 봉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복음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큰 축복이다. ■

제프 메저리, 미국 유타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남편과 나는 고국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시절에 가정을 꾸렸다. 우리 두 사람은 귀환 선교사였고 주님의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시련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앙과 기도로 어떤 고난도 이겨 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역경이 찾아올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시련이 실 새 없이 몰아닥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홀로 앉아 우리에게 닥친 시련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울음을 멈추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다가 고난 중에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났다. 기도에 대한 간증은 있었지만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위안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해결책을 바라거나 시련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간구하지는 않았다. 그저 평안만을 얻기를 구했다.

기도하고 있던 중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문을 열었다. 한 상호부조회 자매님이었다. 그 자매님은 그 동네에 일이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우리 집에 들렀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 자매님을 꼭 안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매님 댁에 들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고 그 자매님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축복이다. 그분은 필요한 순간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분의 자녀를 보내 나를 도우셨다. 그 자매님이 영의 속삭임을 듣고 그에 따랐던 것에 감사한다. ■

라켈 에 페드라자 데 브로시오, 미국 유타주

기도에 대한 간증은 있었지만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았다.



오래된 물몬경

몇 년 전의 일이었다. 내 전화에 이런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혹시 아이다호폴스에 사셨고, 1974년에 워싱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댄 홉스 씨인가요? 저는 톰 재너키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부모님을 가르치셨던 것 같은데요.”

나는 깜짝 놀랐다. 봉사했던 곳이 워싱턴주가 아니라 텍사스주이긴 했지만, 그런 이름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불현듯 서랍장 위에 있는 1948년판 물몬경이 생각났다. 나는 그 책을 펼쳐 첫 페이지에 적힌 메시지를 확인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4년, 프랭크와 버지니아 재너키.” 문득 내 마음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 당시에 나는 스물한 살이었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의 선교 사업이 거의 끝나 가던 시점이었다. 동반자와 나는 별 성과 없이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집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따뜻하게 우리를 안으로 맞아 주었다. 그는 자신을 프랭크 재너키라고 소개했고 아내인 버지니아도 소개해 주었다. 그날 방문은 짧게 끝났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들을 만나 복음을 가르쳤다. 그들은 침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항상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었다. 하루는 토론하던 중에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물몬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어떻게 그 책을 얻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보며 무척 감탄했었던 것만은 생각난다.

귀환하기 직전에 나는 동반자와 함께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들렀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프랭크는 그 오래된 물몬경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내게 작별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 성경에도 내 이름과 주소를 적어 달라고 했다. 재너키 부부를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지만, 나는 그들이 준 선물을 항상 소중히 간직해 왔다.

그날 저녁 나는 톰이 남긴 번호로 전화를 했다. 톰은 내가 1974년에 워싱턴에서 선교 사업을 했냐고 다시 물었다. 나는 텍사스에서 봉사했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이 프랭크와 버지니아가 맞냐고 물었다.

그는 부모님이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하루는 토론하던 중에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물몬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프랭크는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내게 작별 선물로 주었다.

이주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부모님이 워싱턴에 계시는 때 선교사가 방문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는 가족 성경책에서 내 이름과 주소를 발견했다고 했다.

“저와 제 남동생이 침례를 받았는데, 선교사님들이 저희 부모님께 무척 잘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부모님은 수년간 여러 선교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셨고 그 모든 선교사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러더니 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부모님의 성전 사업을 거의 다 마쳐 가는 중입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톰에게 전화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선교 사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과연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긴 했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톰의 전화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자비였다. 내가 선교 사업을 했던 것에 감사하고, 재너키 가족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

댄 홉스, 미국 아이다호주

초보 엄마의 기도

작지만 발육이 빠른 남자아이를 둔 초보 엄마로서, 나는 가끔 내 인생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먹이는 일이 전부라고 느낄 때가 있다.

엄마가 되는 것에 적응해 가면서 나는 내가 나의 영적인 필요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보통 경전을 읽는 대신에 정말 필요한 낮잠을 자거나 빨래를 한 번 더 하곤 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급하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곤 했는데, 보통 아들이 잠들게 해 달라거나 계속 잠들어 있게 해 달라는 기도, 또는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들이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는 내 영혼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는지를 깨달았다. 간증을 강화하고 싶은 소망이 시들고 있었다. 교회에 3시간 내내 앉아 있고 싶지 않았고, 집이나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할 시간이나 힘도 없는 것 같았다. 복음의 빛을 다시 느끼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도 몰랐다. 어느 날 밤, 나는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갔다. 상호부조회 공과를 들으면서 상호부조회의 목적이 적힌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일요일마다 그 포스터를 보긴 했지만 한 번도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 포스터에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어, 자매들이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찾고 돕”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다.

그것을 다시 읽어 보았다. 이번에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운다는 부분에 집중했다. 내가 효과적으로 교회 부름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면 나의 영적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매일 경전을 읽을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나의 영적인 필요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보통 경전을 읽는 대신 정말 필요한 낮잠을 자거나 빨래를 한 번 더 하곤 했다.

나의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챙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도를 구하기 시작하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붙는 것 같았다.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방문하고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이 다시금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한때, 할 시간이나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일이 되었다. ■

크리스탈 베이커 치프먼, 미국 유타주



가나의 이 청년은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저도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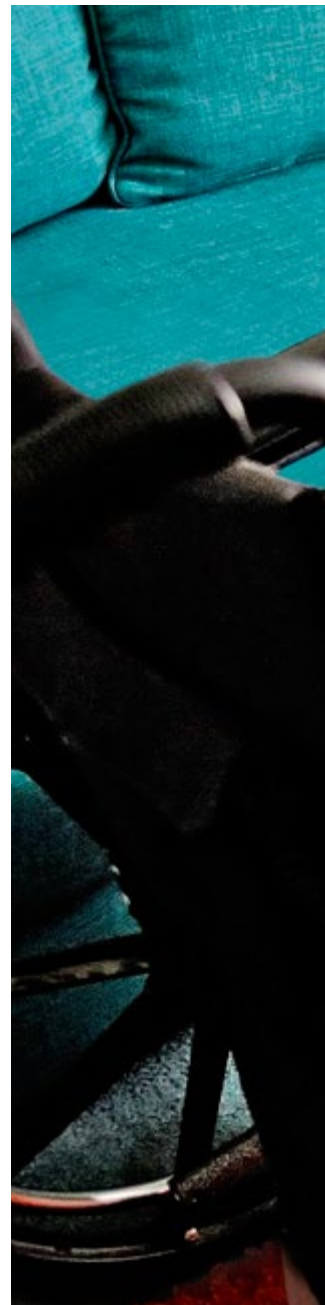
에릭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법을 배웠는가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잡지

가나 테치만에 사는 21살의 에릭
아열라는 세 살 때 어머니와 함께
길가의 시장에 갔다가, 중심을 잃고
달려오는 차에 치였다.

하반신 마비가 된 에릭은 다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슬한 어려움을 겪었다.
마침내 에릭은 다리 보조기를 얻어서 설 수
있었지만, 이내 몸이 너무 커 버려서 보조기는
쓸모가 없게 되었고 새로운 보조기를 살 형편도
되지 않았다. 그는 작은 휠체어를 받았지만,
그것도 몸이 커지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리는 말라 갔고, 경련이 일 때도 있었으며,
발은 기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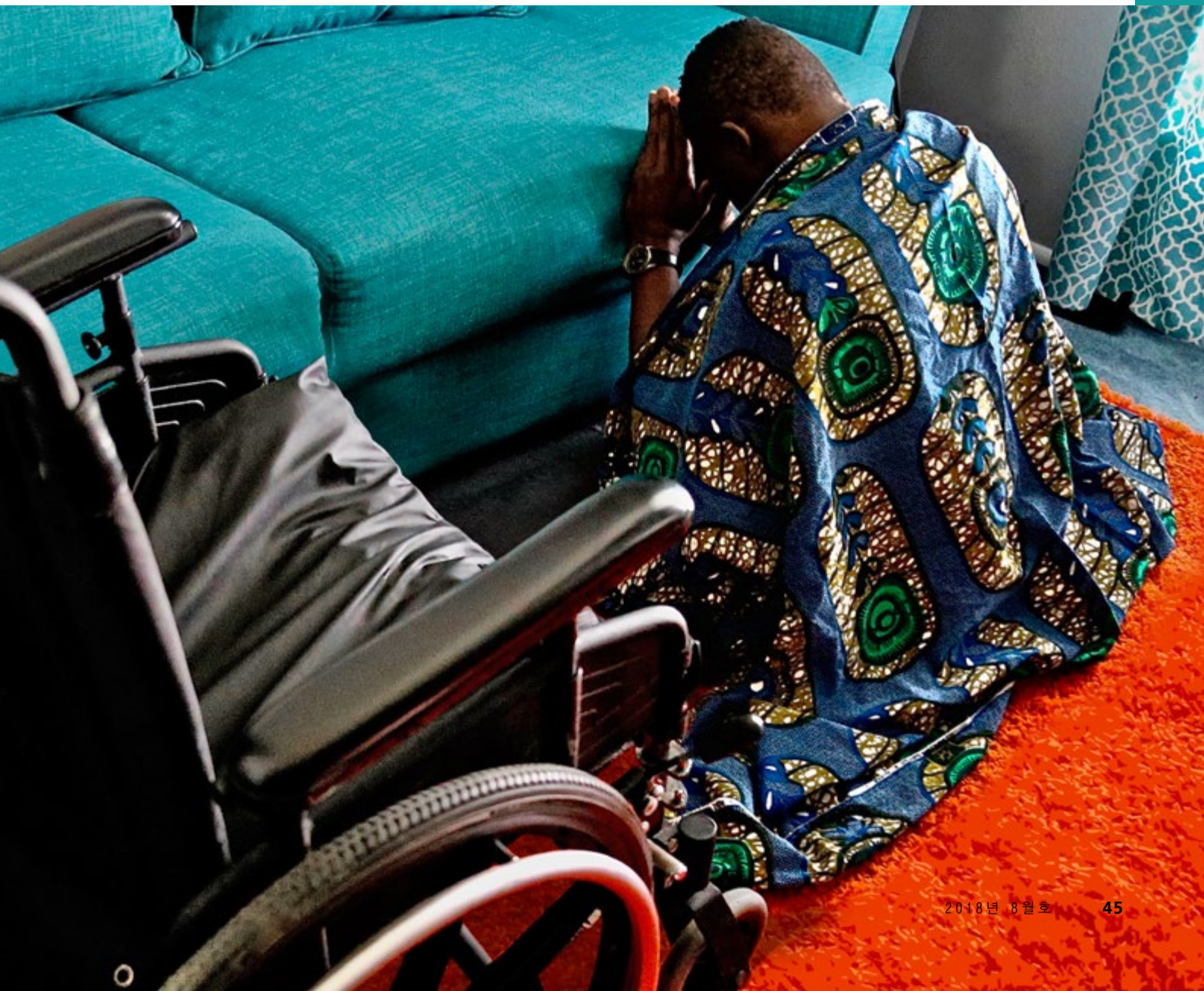
가나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에릭의 가족은 가진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10살이 되었을 무렵 에릭은 잘
움직이지 못한 데다가 나무와 콘크리트 위에
앉아 있었던 탓에 욕창이 생겼다. 욕창은 깊어서
고름이 계속 흘러나왔고, 악취도 심했다.



그래서 에릭은 사방이 확 트인 햇간의 긴 의자에 앉아 지냈다. 에릭의 어머니 루시와 그의 여동생들이 음식을 가져다주고, 옷을 빨아 주고, 몸을 씻도록 도와주었다. 종종 에릭은 비에 흠뻑 젖어서 추위로 벌벌 떨며 밤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온기를 가져다주는 아침 햇살을 좋아하게 되었다.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고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해를 햇간에서 지내며, 때때로 휠체어를 타고 동네를 구경했다.

믿음의 시작

화를 내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어요.”라고 에릭이 말한다. “아무도 제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분의 창조물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볼 수 있었어요. 삶이 힘들 때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면 뭔가 훌륭한 것이 제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봐, 하나님이



여기 계셔. 정말 멋진 일이야.'라고 말하죠.”

에릭은 기도하는 방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응답을 받았다. 그가 아팠을 때, 예기치 않게 의사의 진찰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욕창을 낮게 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욕창이 사라졌다. 몸이 커 버려서 작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도 그에게 더 큰 휠체어를 가져다주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선한 일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에릭은 말한다.

그리고, 기적처럼 에릭은 14살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가 조리사로 일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에릭의 교복을 살 돈과 책값과 학비를 겨우 마련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다른 애들과 같이 교실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남아 항상 공부를 했죠.”라고 에릭은 설명한다. 에릭은 수학과 읽기, 쓰기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교장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 병원 수녀가 새로운 삼륜 자전거를 기증한 덕분에 에릭은 손으로 페달을 밟으며 수월하게 학교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에릭은 욕창이 다시 재발했다. 감염이 재발되면서 상처에서 고름이 새어나와 심한 악취가 났다. 학생들은 에릭 주변에서 늘 파리가 날아다닌다고 불평했다. 에릭이 17살이 되자, 교장 선생님은 집에 가서 치료를 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학교로 올 수 없다고 말했다.

에릭의 아버지는 시골에 작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을 시키려고 가족을 농장으로 데리고 갔고, 에릭은 집 헛간에 혼자 남게 되었다. 한편, 에릭은 욕창이 커져서 큰 상처로 발전한 데다 뱀속까지 감염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골수염이 생겼다.

오브루니와의 대화

18살이 된 에릭은 친구 엠마누엘 오포수 헤네가 오브루니(백인)와 영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오브루니는 물론 선교사인 올드 장로였다. “제가 트위어밖에 할 줄 몰라서 엠마누엘이 통역을 해 주었어요. ‘저는 아파서 죽을 거 같아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줄 수 있나요?’

올드 장로와 그의 아프리카인 동반자가 제 곁에 앉아서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지혜의 말씀부터 가르쳐 주었죠. 커피와 담배가 나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또한 에릭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해 나오는 소책자를 주었고 교회로 초대했다.

“교회에 갔을 때, 이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경건했어요.” 혼자 힘으로 휠체어를 밀며 교회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이 걸렸지만, 에릭은 교회 모임이 좋았다. “저도 앞으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가 말한다. “하지만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서 심한 냄새가 나는 걸 알았으니까요.”

에릭은 선교사들에게 말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은 참됩니다.” 그는 자신이 침례를 받고 싶지만 의사 선생님이 상처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나님께 해답을 달라고 할 거예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거의 일 년을 교회에 참석했으나 그 후 너무 아프고 약해져서 혼자서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에릭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가나에서는 물, 음식, 침구, 약, 붕대를 환자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했다. 에릭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에릭은 음식과 치료를 어쩌다 한 번씩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졌다.

예상치 못한 방문

그때 에릭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선교사인 페프라 자매와 나푸나 자매가 교회에서 그의 사진을 보고 병문안을 와서 음식을 주었다. 교회에 안 간 지 일 년이나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며칠 후 에릭의 여동생이 병원에 왔다가 그가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동생이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도 에릭과 함께 당했던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힘들었지만, 걸을 때마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병원으로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가야 해.” 어머니가 에릭에게 말했다. “네가 죽게 된다면, 난 네 곁에 있고 싶구나.”

다음 날 아침, 자매 선교사들이 집에 왔다. “병원에 안 계시더군요.” 페프라 자매가 말했다.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온 이들이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온 장년 선교사 우드 장로 부부였다. 그들은 필요한 물품을 적고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에릭의 아버지가 에릭만 빼고 가족을 다시 농장으로 데리고 갔다. 에릭은 자신이 음식도 물도 없이 혼자 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드 장로와 자매가 다시 돌아와 혼자 배를 꿰고 있는 에릭을 발견하고는 음식과 물을 가져다주었다.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찾아왔고, 에릭의 다리에서 진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는 그의 허벅지에서 커다란 궤양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에릭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우드 장로 부부는 미국에서 온 인도주의 의료팀이 가나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팀은 무료로 에릭을 수술하기로 했고, 외과 의사가 에릭의 다리에 있는 궤양을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에릭에게 골수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데다가 그 상처가 심한 것을 보자, 가나에서는 그에게 필요한 치료를 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도주의 단체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에릭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추가 치료를 해 주고 영구적으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게다가, 교회 회원이 운영하는 가나 위네바의 보호소에서는 에릭이 가나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살게 해 주고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심

직업이 엔지니어였던 우드 장로는 에릭이 손으로 페달을 밟는 자전거를 새로 조립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휠체어도 비슷한 방법으로 수리해 주었다. 또한, 그는 의사였던 가나 쿠마시 선교부의 코스그라브 선교부 회장과의 상의를 했다. 그들은 에릭이 적절하게 예방 조치를 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우드 장로님이 제 몸을 비닐로 싸고는 비닐에 테이프를 붙여 줬어요.”라고 에릭은 설명한다. “그런 다음 소독 처리한 물로 채워진 침례탕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2016년 6월 26일에 침례를 받았어요.” 에릭은 주님께 의지했고,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 ■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재능을
키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안 들어가면 어쩌죠?

세라 키년

교회 잡지

내가 여섯 살이었을 때, 아빠는 나와 언니를 데리고 가서 농구를 하게 하셨다. 진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작은 손에 농구공은 무겁게 느껴졌고 농구 골대는 제일 낮은 위치에 설정해 놓았는데도 내게는 까마득히 높아 보였다.

“걱정 말고 한번 던져 봐.” 아빠가 말씀하셨다.

나는 아빠를 돌아봤다. “그런데 안 들어가면 어쩌죠?” 내가 물었다.

20년도 더 지난 지금, 내가 그때 던진 공이 골대 속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느낀 두려움은 잘 기억하고 있다. “안 들어가면 어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실패를 두려워함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평생 나를 괴롭혔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일을 하다보니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요령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사소하게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나는 내가 어떤 스포츠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시도조차 해 보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 과목은 피했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는데 곧바로 성공하지 못할 때, 내가 취한 해결책은 재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더 잘하는 일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그 후에 나는 선교 사업을 떠났다. 처음으로, 내 약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쉽사리 받을 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고 만 것이었다. 나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다. 새로운 언어로 가르치는 것도 힘들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절을 당했다.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늘 그런 실패를 하자 포기하고 집에 갈까 하는 생각을 했던 날들도 있었다.

번역의 어려움

이 시기에, 나는 금판을 번역하려고 애썼던 올리버 카우드리의 이야기에서 내게 꼭 필요한 영감과 해결책을 찾았다. 올리버는 몇 주 동안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일한 후, 자신도 판을 번역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조셉이 주님께 여쭙었고 올리버도 번역하도록 허락을 받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주님은 또한 올리버에게 몇 가지 주의를 주셨는데, 그중 두 가지는 “인내하라”와 “무서워 말라”는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6:19, 34)

번역은 올리버가 생각한 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자, 그는 낙담하고 곧 포기해 버렸다.

놓쳐버린 기회들

이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나는 올리버의 문제가 나의 문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번역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금방 습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다시 말해 번역의 은사를 발전시키려 하는 동안 여러 번 실패할 것이 분명해지자, 그는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서기 일로 다시 돌아갔다. 주님의 경고가 정확했던 것이다. 올리버는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께 인내하지 못했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기회를 거두어 가셨다.(교리와 성약 9:3 참조)

나는 내가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얼마나 자주 포기했는가를 깨달았다. “안 들어갈까 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아예 시도도 해 보지 않거나 몇 번 해 보고는 금방 포기해 버렸던 것이었다. 실패를 피하려는 마음에, 나는 앞으로 다가올 성공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나는 나 자신이나 하나님께 인내하지 못했고, 두려워했다.

올리버 카우드리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희망을 품었다. 주님께서는 올리버에게 당시에는 번역할 수 없더라도 “내가 네게 능력을 주어 너로 번역을 돕도록 할 다른 기록들을 나는 가지고 있느니라”라고 약속해 주셨다.(교리와 성약 9:2) 올리버는 번역할 기회를 잃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단지 나중에

미뤄졌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놓친 기회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내가 기꺼이 인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음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외국어로 가르치는 것이 여전히 두렵기는 했지만, 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발전시켰다. 그러한 기술은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거나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닌 일을 할 때면 여전히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계속 시도하고,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

선교사로 부름



받기 전에

선교사로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이언 카
교회 잡지

선 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선교사로 봉사한다는 건 어떤 일인지 궁금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기회에 전임 선교사들에게 물어보자.(실제 선교사의 답변은 아니나, 일반적인 답변을 담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로님들. 선교사는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전임 선교사: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 6시 30분이에요. 그런 다음 몇 시간 동안 복음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는 지역의 언어를 공부하죠. 주례 목표를 살펴보고 하루를 계획해요. 사람들이 약속에 못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계획도 생각해 두죠. 그런 후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요. 가르칠 사람을 찾고, 회원들과 함께 일하고, 약속한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집이 그리운 적도 있었나요?

전임 선교사: 그럼요, 특히 선교사 초반에 그랬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또 가족이 보내온 이메일을 읽을 수도 있어요. 향수병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에 집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어떤가요?

전임 선교사: 처음 임지에 도착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매일 하니깐 익숙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중에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목소리를 높여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 점점 더 재미있어져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가요?

전임 선교사: 네, 잘 하려면 연습을 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 주고 그들이 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가르치려고 하죠. 매일 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신의 인도를 느끼는 거예요. 선교사로 성별받는 것이 도움이 되죠.

여러분: 선교 사업은 힘든 일인가요?

전임 선교사: 네, 우리는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하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보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만큼 사람들이 발전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게 돼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사람들이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사람들이 간증을 얻고 개종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저에게 간증이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임 선교사: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세요! 교회에 가고 세미나리에 참석하세요. 할 수 있으면 성전에도 가고요.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하세요. 영을 느낄 기회가 더 많으면 간증도 더 강해질 거예요. 가정의 밤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물몬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선교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전임 선교사: 우리는 경전, 특히 물몬경을 공부했어요. 일거리를 구하고 돈을 저축했죠. 하지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읽고 선교사 준비반에 더 자주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요리하는 법도 배워 두었더라면 좋았을 테고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임 선교사: 물론이죠! 전 세계에는 약 70,000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업은 소망으로 시작되죠.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4:3) 하지만, 준비도 필요하죠.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그 외에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전임 선교사: 복음대로 생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세요. 그렇게 하면 간증이 강해지고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며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내어 복음 원리를 더 많이 배우고 그런 원리에 따라 생활하세요.

전임 선교사: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질문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선교사 지원 양식을 작성할 때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이 하실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알고 있으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 질문을 토론해 보세요. 질문이 많다고 놀라지 마세요. 내일 당장 선교사 훈련원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을 들여 준비하면, 선교부에 도착한 첫날에, 여러분은 합당하고 신나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

글쓴이는 캐나다 몬트리올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합당성과 간증

1.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앨마서 32:27)

2.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의 구주와 구속주이시라는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3. 회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범법을 완전히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4.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회복되었으며, 러셀 엠 넬슨 회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간증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5. 물몬경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6.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려면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다음 표준을 따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는 이 성스러운 봉사 시간이 즐겁고 영적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여 합당하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여러분이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감독님 혹은 지부 회장님이 여러분의 준비 정도를 가능하기 위해 물어볼 질문들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감독님, 그리고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언제든지 토론해 볼 수 있다.

ㄱ. 순결의 법

순결의 법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항상 생활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 이 법을 어기셨습니까? 회개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결의 법: “순결이란 성적인 깨끗함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야곱서2:7) 여러분은 순결하기 위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92쪽)

ㄴ. 외설물 피하기

외설물 피하기: 제일회장단의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무심코 노출된 경우부터 통제할 수 없는 중독의 경우까지 외설물에 노출된 심각성의 정도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외설물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파악하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 내용을 더 알아보려면 다음 자료를 찾아본다. “외설물의 뒷에서 벗어나기”, *리아호나*, 2015년 10월호, 50~55쪽; overcomingpornography.org.

ㄷ. 십일조의 법

ㄹ. **지혜의 말씀** 약물 사용이나 처방 약품의 남용 포함

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ㅂ. 모든 말과 행동에 정직하기

지금까지 이 모든 표준에 따라 생활하십니까? 현재 이에 따라 생활하십니까? 전임 선교사로서 이에 따라 생활하시겠습니까?

능력 및 자격

7. 보류 중인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까?

8. 체포, 유죄 판결, 기록 말소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법률상 심각한 위반을 한 적이 있습니까?

9. 기소, 유죄 판결, 기록 말소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 성적 학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10. 그 외에 선교 사업 전에 해결해야 하는 다른 심각한 범법이나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1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에 위배되거나 반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행하는 그룹 또는 개인을 지지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 가르침이나 행위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12. 지불하지 않은 빚이 있습니까? 선교 사업 전에 어떻게 이 빚을 지불할 것이며, 또는 선교 사업 중에 관리할 것입니까?

13. 일반적인 선교사 일정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현재 있거나 이전에 있었습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선교사 일정이란 하루에 2~4시간 학습, 하루에 8~10시간 도보 또는 자전거 이동 등, 하루에 12~15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난독증이나 기타 읽기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다면, 경전이나 다른 문서를 소리 내 읽는 것은 괜찮습니까? 동반자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경전 문구와 기타 정보를 암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이 장애를 어떤 방법으로 보완합니까?

15. 언어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며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적절한 도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6. 다음 질환으로 약물치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AD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OCD),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페르거 증후군 포함) ‘예’인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17. 이런 질환의 치료를 받았었고 치료를 중단했다면, 의사의 지시하에 중단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중단했습니까? 치료나 약물치료 없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로 약물치료를 받으셨습니까?

lds.org/go/81850에서 선교사 준비에 관한 동영상 및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저해할 수 있는 합당성 및 건강 문제는 많은 경우 극복할 수 있다. 필요한 도움을 구한다. 선교 사업을 하러 갈 준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건강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께 알린다. 그렇게 하면, 선교부 배정 전에 교회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한 예로, 다음의 플레처 자매의 이야기를 참고한다.

제가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에리카 플레처

선 교사 저금통에 처음 동전을 넣는 순간부터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었다. 그렇게 12년 동안 저금을 해 왔는데, 자매들이 19세부터 봉사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그때가 나에게 적절한 시기인지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는 선교사 추천서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나는 선교사 부름이 내게 적절한 것이기를 바랐고, 특히 내 건강에 관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야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예고도 없이 발작이 일어나는 간질을 앓고 있었다. 다행히도, 내 상태는 약으로 완전히 다스릴 수 있었다. 그래도 약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장소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동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내가 복용하는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약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라는 영감을 주셨을까?

우리 가족과 나는 응답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했다. 주님께서 내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봉사하기를 정말로 바라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주치의 선생님이 18개월분의 처방전을 써 주셨지만, 보험회사에서는 1년치 의료비만 지급해 주어서 나머지 6개월분은 우리가 지급해야 했다.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약값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선교사로 성별을 받을 때, 스테이크 회장님은 나에게 내 건강 상태가 선교 사업 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신체적인 한계에까지 도달하긴 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선교 사업을 하기 전과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플레처 자매(왼쪽)는 간질을 앓고 있지만,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다.(동반자 및 선교부 회장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선교사가 되는 것에 관해

살렛 라카발
교회 잡지

지 금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또 하나의 선교사 지침서라고 불려도 될 만큼 훌륭한 지침서가 하나 있다.

바로 교리와 성약이다. 이 책에는 영원한 가족에 관해 새롭게 계시된 훌륭한 교리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복음을 나누라는 계명도 반복해서 나온다. 사실, 여러분은 선교사에게 주는 모든 약속과 훈계가 들어 있는 이 경전을 복음을 나누기 위한 지침서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을 읽는 것만으로도 선교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훌륭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1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리와 성약 80:3: “그런즉 너희는 북쪽으로는 남쪽으로, 동쪽으로는 서쪽으로 상관 없이 가니,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너희가 그릇 갈 수 없음이니라.”

“저는 이 성구에서 주님이 ‘상관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 당신의 종들이 어디에서 봉사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 그분께서는 권한을 부여한 종들에게 영감과 인도와 지시를 주십니다. 선교사들이 주님의 손안에서 더욱 합당하고 유능한 도구가 되고자 애쓰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 덕분에라도 그들은 ‘그릇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봉사하더라도 말입니다.’¹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2

경전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84:85: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여러분이 연구와 신앙으로써 경전과 후일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쌓아둘 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은 커질 것이다. 여러분은 가르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도록 영이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다.”²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교리와 성약에서 배우는 5가지

3

복음을 찾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교리와 성약 123:12: “이는 아직도 땅에는 ... 미혹하려고 엮드려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교한 계교로 눈이 멀게 된 자들과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많음이니라.”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친구와 이웃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아, 친구들에게 회복된 복음 진리를 소개해 줄 만한 생각이나 권유를 나누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트윗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³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4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한다.

교리와 성약 42:14: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

“선교사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자신의 혀를 풀어 주시고 자신이 가르치게 될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빛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열정도 더 커질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하는 그분의 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달라진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⁴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5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성신이 간증하실 것이다.

교리와 성약 100:7~8: “그러나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엄숙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선포할지니라.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성신이 임하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해 주시리라.”

“성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것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친숙하게 들릴 것입니다.”⁵

—보이드 케이 팩커(1924~2015) 회장

목표를 세운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올해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면서 선교 사업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그런 후 그 가르침 중 일부를 실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다음을 기억한다.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이는 보라, 받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라.”(교리와 성약 4:3~4).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68쪽.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9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70쪽.
4. Gordon B. Hinckley, “Missionary Service,” *First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Jan. 11, 2003, 20.
5. Boyd K. Packer, “The Light of Christ: What Everyone Called to Preach the Gospel, Teach the Gospel, or Live the Gospel Should Know” (address delivered at the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2, 2004), 2,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교회가

정말 필요한

6

가지 이유!

에릭 비 머독 및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인 생에서는 많은 것이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따라야 한다.

누군가에게서 왜 교회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또는 왜 교회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 혼자서는 영적인 상태에 이를 수 없는가? 이를테면, 산이나 해변, 또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사실, 정말로 좋은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반적인 영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과 조직을 마련하셨다.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바로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조직이다.(교리와 성약 1:30)

우리에게 교회가 정말 필요한 여섯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에 참여한다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얻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충만한 복음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교리와 성약 1:17~23 참조)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리고 겸손하고 자주 기도하며 부지런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간증을 얻을 수 있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지도자와 교회 자료를 통해 복음의 회복, 오늘날 선지자의 부름, 신회의 참된 본질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교리를 배운다. 참된 교리와 부합하는 생활을 할 때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2.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다.(모세서 1:39)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분의 일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복음의 의식과 성약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들이 근거한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¹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에 참여해야 하고 성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한 의식과 성약에는 신권이 필요하며, 그 신권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런 성약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알아야 할 지식, 즉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니콜라스 엠, 미국 오하이오주

3. 영생의 길을 가는 동안 서로를 돕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님께서 교회를 두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험窄하고 좁은 길에서 성도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니파이후서 31:18]”²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돌보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이끌고, 인도하며, 나란히 걸어감으로써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서로 도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에베소서 2:19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³ 교회야말로 그 일을 할 완벽한 장소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으며,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인봉될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지상에서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조직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고, 사람들이 승영을 준비하게 하는 곳이죠.

산텔 엠, 호주

교회가 있는 이유는 회원들이 모여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며 우리가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짐을 들어 주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제러미 피, 미국 일리노이주

이 교회를 통해 저는 부모님과 누이들, 그리고 언젠가 이를 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윌포드 피, 브라질 상파울루

교회는 우리가 사랑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도덕적으로 암흑인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도와줍니다.

켄지 비, 미국 워싱턴주

우리는 교회를 통해 불멸과 영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에머 더블유, 미국 뉴햄프셔주

4. 가족이 영생을 누릴 자격을 얻도록 돕는다

교회가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영생을 누릴 자격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인봉 의식을 통해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며 그런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신권 의식을 집행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추도록 돕기 위함입니다.”⁴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그러한 성약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며, 영생의 길을 가는 동안 서로를 지원하도록 돕는다.

5. 전 세계의 사람들을 축복한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인이나 소집단[이] 할 수 없는 필요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⁵

여러분은 교회가 복지 및 인도주의적 원조와 봉사 사업에 지난 30년간 매년 4천만 달러 상당을 기부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교회 회원들이 제공하는 후한 기부와 자원봉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한다.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의 놀라운 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복음의 빛을 나눈다. 봉사 중인 선교사(청년 및 장년 선교사 포함)는 거의 105,000명에 달한다. 와! 이 정도면 몇몇 도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이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관대한 헌금으로 교회는 전 세계에 성전을 지을 자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4월 현재, 182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거나 건축 중이거나 건설이 발표된 상태이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과 가르침을 유지하고 회원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정확한 교리를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계시와 표준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레이철 에프, 미국 애리조나주

6.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65장 참조)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비롯하여 이후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신권의 열쇠를 부여하셨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열쇠의 권세 안에서, 교회의 신권 역원들은 구주의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그분의 구원 의식을 온전하게 보존합니다.”⁶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당신의 사업을 운영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신다. 그러한 지도력이 없다면, 온갖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이 우리를 어두운 금단의 길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없으려면, 올바르게 부름받고 성임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제공하는 보호가 필요하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교회를 통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에머 더블유, 미국 유타주

우리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이 어려운 시기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이 지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매튜 피, 미국 뉴햄프셔주

주

1. 러셀 엠 넬슨,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2005년 4월 연차 대회.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교회가 필요한 이유”, 2015년 10월 연차 대회.
3. Jeffrey R. Holland,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hurch,” *Ensign*, June 2007, 90.
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교회가 필요한 이유”
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교회가 필요한 이유”
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교회가 필요한 이유”

여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앨마는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앨마서 12:24)이라고 가르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회로 잘 활용하려면 인도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은 바로 주님과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철십인 이만 에스 아던 장로, “준비할 시간”, 2011년 10월 연차 대회.



목표를 향해 노력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세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2시간 동안이나 하는 등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를 하죠. 새로운 재능을 키우거나, 개인 발전 기록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하거나, 동생이나 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이야기를 쓰거나, 정리정돈을 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끝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키는 규칙은, 여가를 항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자는 거예요.

김벌리 에이, 19세, 미국 알래스카주



자신이 바라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집 거실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일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문해 보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세요. 영이 여러분과 함께할 일을 하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부합하는 일을 하세요.

에이미 피, 16세, 미국 켄터키주



찬송가를 부르거나 들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가 활동은 찬송가 부르기에요. 저는 교회 찬송가를 최대한 많이 암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찬송가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몇 곡을 미리 다운받아 둡니다.

저스티스 오, 16세, 나이지리아 오를루

물문경을 공부하세요

저는 남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물문경을 공부합니다. 물문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했듯이,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물문경 소개)

린 티, 18세, 가나 아크라



목표를 세우십시오

먼저, 몇 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저는 제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다음 날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계획합니다.

아고스티넬리 장로, 20세, 칠레 산티아고 서 선교부

교리를 연구하세요

여가를 사용하는 훌륭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교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경전, 교회 잡지 기사, 그 외 마음을 고양하는 자료들을 읽으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훨씬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조시 시, 13세, 미국 테네시주

제시된 의견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 교회의 공식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면, 선택의지를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에 대한 우리의 답은 계시로 주어진 다음 두 가지 기본 진리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보신다.(교리와 성약 38:2 참조) 더욱이, 그분은 우리가 이 지구로 오기 전에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를 직접 겪으셨으므로, 우리 각자가 지닌 성향과 성격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선택의지가 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두셨다.(교리와 성약 93:27~32; 아브라함서 3:21~25 참조) 선택의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하며 수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니파이후서 2:14, 16, 27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는 선택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유하시고 유도하시되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모로나이 7:16~17 참조)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가족과 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8년 9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사 제출 혹은 피드백” 클릭)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십니까요?

그렇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2018년 4월 연차 대회

구주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2018년 3월 31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지지받음.



네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주가 있음.



코치의 격려에
힘입어, 학교
축구 팀 입단
시험을 봤고,
축구를 매우
좋아했음!

1980년 1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수전
린지와 결혼.



1986년에 워싱턴 D.C.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로 재직.



대만 타이베이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함.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며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관하여 약 400개의 참조 성구를 바탕으로 항상 그분을 기억하는 여섯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약과 약속, 보장에 확신을 가짐으로써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손길을 감사히 인정함으로써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교리와 성약 58:42) 확신시켜 주신 것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기쁘게 맞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다섯째, 안식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필멸의 성역을 마치실 때와 부활 후에 성역을 시작하실 때, 빵과 포도주를 취하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 의식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분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증거하며, 그리하여 항상 그분의 영광 함께하고자 합니다.(모로나이서 4:3; 5:2;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마지막으로 여섯째, 구주께서는 당신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듯 우리도 항상 당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잇는다 할지라도 ...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이사야 49:15~16; 또한 니파이전서 21:15~16 참조)

그분은, “나는 들리웠던 자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교리와 성약 45:52)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항상 그분을 기억하기를 겸손히 간증하고 기도합니다.(모사이아서 18:9 참조) ■

2016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 관한 질문

여러분이 동의하는 답에 모두 표시하고, 여러분 나름의 답을 덧붙이세요. 그런 다음, 기도에 관해 알고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1. 하나님 아버지는 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실까요?

-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2.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나요?

- 아침저녁으로
- 무서울 때
- 선택을 해야 할 때

3.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도하나요?

- 내 방에서
- 별빛 아래서

4. 무엇에 관해 기도하나요?

- 나에게 생긴 문제에 관해
- 하루 중 생긴 일에 관해

5.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듣나요?

- 경전을 읽을 때
- 평안을 느낄 때

나의 기도 일지



- 걱정이 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적는다.
-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 기도한 후에는 조용히 성신에 귀 기울인다.
- 주 중에도 응답이 오는지 계속 지켜보고 귀 기울인다.
- 받은 응답을 기록한다.



기도 알림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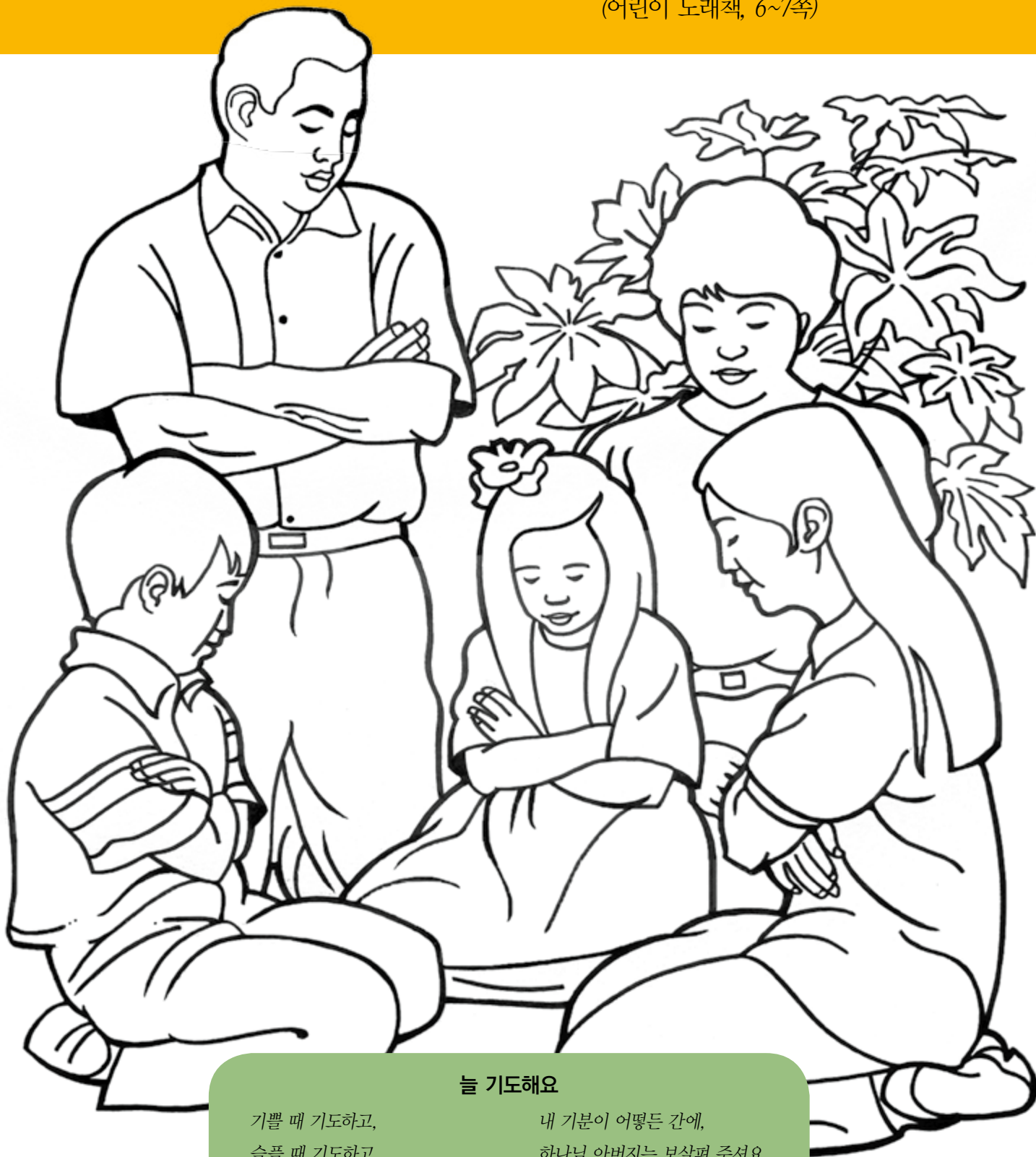
“해야 할 일의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기도 알림 카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

“기도하라 주 들으시리
주의 사랑 너를 감싸리라”
(어린이 노래책, 6~7쪽)



늘 기도해요

기쁠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무서울 때도 기도하고,
화날 때도 기도해요.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보살펴 주셔요.
그래서 하루가 좋은 나쁘든,
늘 기도를 해요.

테레사 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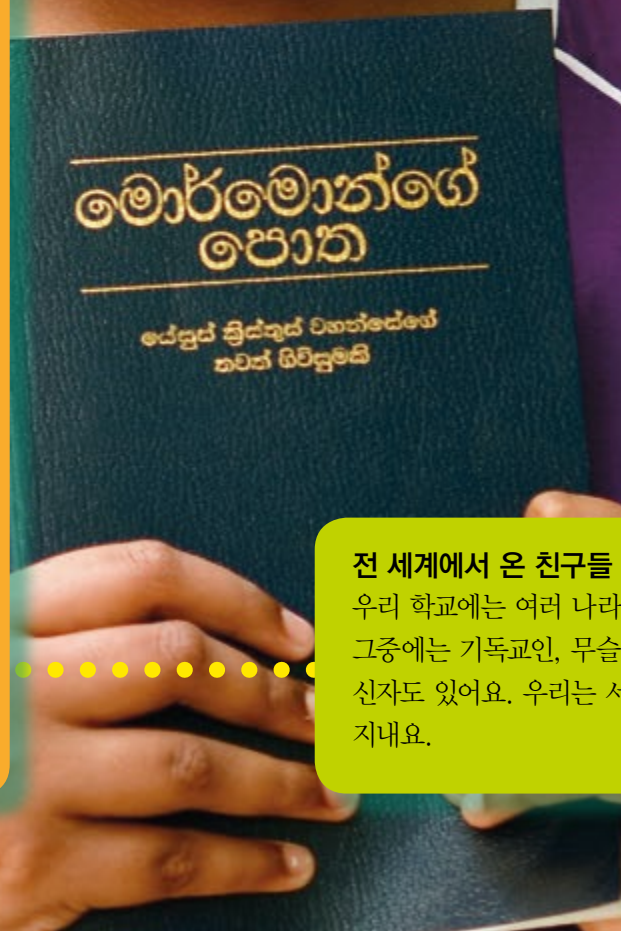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테파니예요!

저는 제 빛을 비추기 위해
간증을 나누어요.



아름다운 섬

저는 스리랑카에 살아요.
이곳은 인도 남쪽 끝 근처의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여기에는 열대 우림, 초록색
바다, 그리고 고대의 역사
유적이 있어요.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해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

우리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기독교인, 무슬림, 힌두교인, 또는 불교
신자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지내요.

빛나는 간증



1. 겁나는 부탁

어느 날, 기독교인 학생들이 특별한 모임을 열었는데, 우리는 각자 간증을 나눠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단상에 나오려 하지 않았죠. 너무 떨렸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수줍음이 많아서 무척 떨렸어요.

3. 간증을 나눔

반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주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어요. 기도에 관한 경험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어요. 용기를 내어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마치 조용한 방에 반짝이는 빛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2. “나가렴”

그런데 어떤 따뜻한 느낌이 밀려왔고, 성신이 “나가렴” 하고 속삭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를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단 위에 섰습니다.



4. 가서 행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몰몬경에서 니파이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별을 보내 주세요!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16)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추나요? 별 사진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담아서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

머나 엠 호이트
실화에 근거함

“그들의 칼과 ... 모든 무기를 취하고, 이를 땅 속 깊이 묻어버렸더라.”(엘마서 24:17)

오 늘은 정말 신나는 날이었어요. 티미의 사촌 매디가 집에 놀러 왔거든요. 매디는 일주일 동안 티미 집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티미는 어서 빨리 매디에게 자기 장난감을 보여 주고 같이 놀고 싶었어요.

매디가 오자마자, 곧바로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이틀 동안 그들은 같이 공룡을 가지고 놀았고 해적 놀이도 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사흘째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티미와 매디는 모든 것에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나무집을 우주선으로 바꾸자!” 티미가 말했어요.

“그리고 싶지 않아. 그냥 안에서 그림이나 그리자.” 매디가 말했어요.

“안에 있으면 지루하단 말이야!”

“아냐, 안 지루해! 우린 항상 네가 하고 싶은 놀이만 하고 있어. 무슨 놀이를 할지 왜 항상 네 마음대로 정하니?”

티미와 매디는 계속 말싸움을 했어요. 더 이상 재미도 없었어요. 티미는 싸울 때 생기는 기분이 싫었어요. 그러다가 티미는 뭔가 생각을 했어요.

“야, 매디. 엔타이-니파이-리하이 사람들 놀이 하자.” 티미가 말했어요.

“뭐라고?”

“엔타이-니파이-리하이 사람들 말이야. 물론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자기네 칼을 땅에 묻었어. 싸움을 엄청 많이 한 게 후회가 되어서 회개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자기네 무기를 땅에 묻었어.”

갑자기 티미의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어요. “우리도 장난감 칼을 만들어서 땅에 묻고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좋아.” 매디가 말했어요.

티미와 매디는 티미의 방에서 블록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모양의 칼을 만들었어요. 어떤 칼은 길었고, 어떤 칼은 짧았어요. 또 어떤 칼은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졌고요. 칼을 다 만들고 나서, 티미와 매디는 직접 만든 무기를 들고 현관에 있는 커다란 깔개로 갔어요.

“이 깔개를 큰 구멍이라고 하자.” 티미가 말했어요.

그들은 깔개 모서리에 앉았어요. 그런 다음 칼을 한 자루씩 깔개에 놓고 그 칼들을 묻는 시늉을 했어요.

티미는 마지막 장난감 칼을 더미 위에 떨어뜨리며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도요.” 매디도 말했어요. “이제 놀자! 무슨 놀이를 하고 싶니?”

“그림을 그리자.” 티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매디도 같이 웃었어요. “그런 후에 바깥에서 우주선 놀이를 하자.”

그 주가 끝나기까지 티미와 매디는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싸움을 그만둔 후 그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놀았어요. ■

글쓴이는 미국 뉴저지주에 산다.



그레이스 블람은 1940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아홉 살 난 소녀였다.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다.

콕! 콕!

새벽 3시에 도시는 폭격을 받고 있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레이스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모두 안전한 곳에 숨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아빠, 엄마, 두 남동생 히버, 엘빈과 함께 부엌 식탁 아래 움츠리고 있었다. 밖에서 폭발음과 함께 우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청나게 큰 소리였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스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는 그레이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르겠구나.”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자꾸나.”

블람 가족들은 서로 꼭 껴안았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빠가 기도했다.

잠시 후, 소음이 가라앉았다. 더 이상의 폭발은 없었다. 그들은 무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 주실 거야.”
엄마가 말했다.

평화의 목소리

메건 암네히트
실화에 근거함



엄마는 그레이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성전에서 인봉받았을 때가 기억나니?”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로 이사올 때, 그들은 유타에 들러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 주실 거야.”
엄마가 말했다.

다음 날, 그레이스가 도시 광장 바깥에 있을 때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위를 올려다본 그녀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작고 검은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레이스는 그 자리에 서서 놀란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달려! 폭탄이다!”

그레이스는 집으로 달렸다. 마침내 안전하게 현관에 들어왔을 때는 심장이 마구 쿵쾅거리고 있었다.

며칠 후, 독일 정부를 이끌고 있던 나치가 네덜란드를 공식적으로 점령했다. 그들은 때로 군대 장교였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들였다. 아빠도 네덜란드군의 장교였기 때문에 나치 장교들은 아빠를 주시하고 있었다.

“아빠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레이스는 생각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고, 아빠는 선교부 회장단의 지도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를 보호해 주실 거야.”

폭격이 있고 난 뒤, 블람 가족들은 그들이 살던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어느 날 그레이스는 새로 전학을 간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있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긴 할까?”

그레이스는 무서웠다. 아빠는 괜찮으실까? 그레이스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급히 밀어젖히고 집안으로 들어서자, 현관에 있는 엄마가 보였다.

“정말이에요?” 그레이스가 물었다. “아빠가 잡혀갔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레이스는 엄마의 슬픈 눈을 보고 아빠가 잡혀갔음을 알았다. 아빠는 전쟁 포로였다. 그레이스는 벽에 기댔다. 너무 무서워서 울 수도 없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 순간, 그레이스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넌 아빠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고요하지만 분명했다. 그레이스는 그 목소리가 성신임을 알았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그레이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가족을 돌보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

글쓴이는 미국 뉴저지주에 산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섬”,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49쪽.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축구와 일요일

독 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운동은 축구이죠. 제가 다섯 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저를 축구 클럽에 등록해 주셨어요. 우리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연습했고, 시합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었어요. 클럽에서 축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거의 매일 해가 질 때까지 축구를 했지요.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는 좀 더 큰 도시의 축구팀에서 선수로 뛰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축구를 하게 된 것이지요. 더 자주 연습하고,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며, 더 많은 팀과 경기를 치렀어요. 축구는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거의 열여덟 살이 되었을 무렵, 어떤 음악회에 갔다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소년을 보게 되었지요. 그는 눈에 띄었어요. 술도, 담배도, 욕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모범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후에 저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침례를 받은 후, 저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안식일에는 축구를 하면 안 되고, 교회에 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축구를 꽤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쪽 같이 축구를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라는 제의도 받았지요. 친구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축구를 접어 두고 대신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했어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부모님은 친구가 축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신문 기사까지 오려서 보내셨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저는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선교 사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오는 좋은 느낌이었어요. ■



다윗과 골리앗

김 웹 리드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갖다주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라는 덩치 큰 병사를 보았어요. 골리앗은 누구든지 싸워서 자기를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와 싸울 만큼 용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왕은 다윗에게 안 된다고 했어요.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골리앗은 크고 강한 용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리라는 걸 알았어요. 마침내 왕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지만,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는 돌 하나를 집어서 물매에 넣었어요. 그리고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혔어요. 골리앗은 넘어졌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백성을 구했어요.



가끔 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져요.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저를 강하게 해 주실 거예요. ■

사무엘상 17장에서 발췌.

나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마빈 제이 애쉬튼
(1915~199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계속 노력하십시오

영생을 향한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구주의 권고를 생각할 때마다[교리와 성약 123:17 참조],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의 행동과 그를 잃었다는 생각에 몹시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가 이렇게 비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의 어떤 점이 부족했습니까?”

그 대신 그는 원망하지 않으면서 아들의 비행을 인내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누가복음 15:24)

가족 때문에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특히 인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이해심을 행사하는 한, 걸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

영생을 향한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누구에게나 고통과 장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슴 아픈 일과 슬픔, 죽음, 죄, 약점, 재난, 신체적 질병, 고통, 정신적 고뇌, 불공정한 비난, 외로움, 또는 거절 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주춧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감한 이들에게 이러한 도전은 진보와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어린 시절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간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극과 좌절이 인생에 느닷없이 끼어듭니다. …

… 인생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부당하게 보이는 일에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느냐에 의해 한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인 그분의 인내는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머물러 계신 동안 가장 심하게 고뇌하셨고, 거부를 당했을 때도 잘 참아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견딜 수 있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21~23쪽, 번역문 일부 수정.



탕자,
저스틴 위틀리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17~20 절)



청년 성인

에릭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
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가나에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에릭은 자신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낸다.

44

청소년 교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함

30

예비 선교사

이 질문들을 활용하여
선교 사업을 준비한다

50

어린이

기도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 보자

66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